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곤지암지점 거래고객
(주)두미나 정두나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영통지점 거래고객
수병원 김준용 대표

IBK로 국민연금 만나고 일상이 즐거워졌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까지
4대 연금과 IBK가 만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IBK로 첫 4대 연금 받거나
IBK로 연금 계좌 바꾸면
최대 6만원의 혜택이

쉽고 편하게 IBK로
튼튼하게 IBK로

개인금융도 역시, IBK



IBK에서 쉽게, 지점에서 편하게
연금 입금계좌변경 서비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최대 6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4대 연금 첫 수령 고객 이벤트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046호(2026.04.15) [유효기간: 2026.12.31]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이벤트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



04 여성시대 특집
여름, 귀신이 등장하는 공포의 계절?



11 이달의 편지
'수박 한 통'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두미나 정두나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수병원 김준용 대표

80 코너 속 편지
'남자 사용설명서' 외

109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여름나기

112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나라 사랑 축구 사랑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6년 8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박정연, 신지호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름, 귀신이 등장하는 공포의 계절?

김종대 | 전 국립민속박물관장



여름이 되면 영화가에서는 공포영화가 등장한다. 조금 빠르게 2026년 4월에 개봉된 <살목지>라는 영화가 인기를 누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살목지>가 우리의 전통적인 귀신인 물귀신을 테마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공포영화는 여름에 상영되는 걸까. 그 6편까지 계속된 유명한 <여고괴담>도 7월에 상영하였다. 이런 것을 보면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대상이 바로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영화라는 점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여름에 공포영화를 만드는 것은 과거 시절의 전통이었다. 일본의 요괴 문화도 사실은 여름에 유행하는 이야기가 정착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의 귀신 하면 일반적으로 신보다는 귀를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과도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대개 신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귀와 신보다는 요괴 문화가 발달되어 여름의 공포 대상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한국에서 전통적인 귀신은 처녀 귀신을 말한다. 손각시가 바로 좋은 예인데, 결혼도 못 한 처녀가 죽으면서 된 악귀(惡鬼)를 이르는 것이다. 손각시는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몰래 묻으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사거리는 많은 남자들이 다니는 길목이라 이들이 밟고 지나가면 만족해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장화홍련전>이나 밀양에

서 유명한 <아랑 전설> 등을 보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던 하인을 죽이는 것을 결말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는 1960년대 <월하의 공동묘지>가 등장하여 인기를 누리게 된다. 기생 월하가 명문가의 아들과 결혼하였는데 계모의 간계로 원통하게 죽게 되자 혼령으로 나타나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이다. 그 서사구조는 한국의 전통적인 처녀의 원통한 죽음과 이의 해원(解冤)의 방식으로 일반적이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반영된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2003년에는 민담을 토대로 한 <장화홍련전>이 영화로 제작되어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다. 장화와 홍련이 새엄마인 계모 허 씨의 모함으로 원통한 죽음에 이르게 되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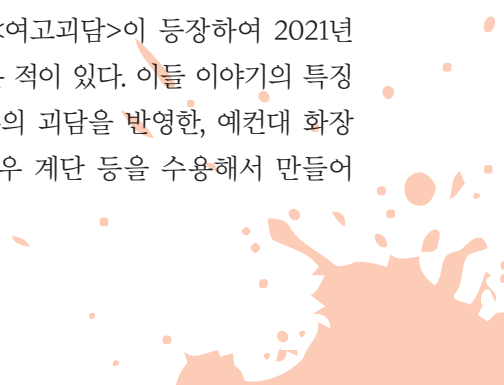


혼으로 부사에게 나타나 해원을 하게 되었다는 전형적인 처녀 귀신 유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원한을 품은 귀신의 등장과 이의 해원 방식은 남성에게 해당되는 몽달귀신이 있다. 몽달귀신은 장가를 못 간 총각이 죽어서 생긴 귀신을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황진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황진이를 사모했던 총각이 있었는데, 상사병으로 죽고 말았다. 총각의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을 지나는데, 상여가 신기하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황진이가 나와 옷을 상여에 얹어주면서 위로했더니 움직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무섭게 느껴지는 영화 <살목지>에 등장한 물귀신을 들 수 있다. 물귀신은 말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인데, 사람이 죽은 저수지나 연못에서 매년 한 명씩 빠져 죽는다는 속설이 있다. 이것은 물귀신이 해원하는 방식으로 희생을 한 명씩 찾아야만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옛날에는 물귀신이 금과 은을 싫어한다는 속신이 전해져서 강이나 바다를 건널 때 호신으로 금이나 은불이를 몸에 지닌다고도 하였다.

1998년에 와서는 영화 <여고괴담>이 등장하여 2021년 여섯 번째 시리즈까지 나온 적이 있다. 이들 이야기의 특징은 한국적이기보다는 일본의 괴담을 반영한, 예컨대 화장실 괴담이나 분신사바, 여우 계단 등을 수용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밤중에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우연히 네 번째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일을 보고 일어서려는데 “빨강 종이 줄까, 파랑 종이 줄까, 아니면 노랑 종이 줄까?” 하면서 변기 쪽에서 손이 스윽 올라왔다. 여기서 색깔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빨강은 피, 파랑은 피가 빠진 시체, 노랑은 황인종의 피부색으로 빨강과 파랑 종이를 달라고 하며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색종이와 관련한 화장실 괴담은 일본에서 건너온 대표적인 괴담으로 특히 네 번째 화장실이라는 점도 죽을 사(死)를 연상시키는 장치라고 하겠다.

<분신사바>도 역시 여고생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파되던 괴담이다. 먼저 볼펜을 두 여학생이 손으로 잡고 원하는 질문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주문이라는 것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트데 구다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일본에서 굿구리상(こっくりさん)에서 변화된 것이다. 대개 질문은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혹은 애인이 생길 것인가 정도였다.

여고생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인기가 있었던 괴담은 <빨간 마스크>와 <홍콩할매 귀신>이었다. <홍콩할매>는 비행기 타고 홍콩으로 가던 할머니가 죽어 귀신이 되었는데, 하굣길의 초등학교생을 유인해서 살해한다는 이야기였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도 뉴스를 타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빨간 마스크>는 전형적인 일본의 도시괴담

인 <입 찢어진 여자>의 복사판이다. 일본에서는 세 자매 중 막내가 성형 수술을 하다가 실패해서 입이 찢어졌는데 이에 원한을 갚기 위해 길을 가다가 만난 소학교 여학생의 입을 같이 찢는다고 한다. 즉 아이를 붙잡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나 이빠?”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쁘다고 하면 일본 낯으로 입을 찢고 도망간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입 찢어진 여자>가 유행했던 시점은 1979년 여름이었다. 한국에는 1990년대와 2004년경에 크게 유행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포항과 부산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해졌는데, 이 이야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괴담이 주로 여름에 유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등골 오싹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야기와 영화를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 괴담은 인간의 빼뚫어진 심사를 반영한 이야기이다. 처녀 귀신의 경우 대개 여자를 겁탈하는 등의 나쁜 짓을 저지른 남자를 벌하는 내용이다. <빨간 마스크>도 일본에서 발생했을 때 학원에 자기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엄마들에 의해서 유포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괴담은 당대의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괴담은 괴담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피서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나는 쏘대인가



[8353] 옆집에 아기 있는 젊은 부부가 사는데 간편밥을 박스로 배달시켰더군요. “아니 자취생도 아니고 밥을 사 먹어?” 했더니, 딸이 “찬밥 남을 일도 없고 좋네” 하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거 같았습니다. 나 옛날 사람인가 싶었어요.

[6046] 회사 워크숍 1박으로 가고 싶는데 후배들은 당일 치기가 좋다고 할 때! 제가 쏘대가 된 거 같았습니다.

[8791] 올 애들이 가끔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 이럴 때 “엄마는 토요일도 학교 갔고 고등학교 땀 밤 11시까지 야자 했다. 요즘 학교는 숙제도 없고 밥도 주고 뭐가 불만이 라안 가려고 하냐?” 이러면 애들이 저보고 쏘대래요.

[4850] 고2 조카딸이 옷옷 셔츠 단추를 세 개나 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후다닥 한 개만 두고 잠가줍니다. 그러면 조카가 “아~모 요즘은 다 이렇게 입어. 이모는 옛날 사람 쏘대 같아”라고 합니다.



[5527] 47살입니다. 처음 사람들 만나면 호구조사부터 합니다. 고2 딸이 이성친구 만났다고 해서 딸한테 그 친구 형제와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왜 묻느냐고 하더군요. 딸이 저 보고 쏘대라고 하더라고요.

[4569] 저는 전철에서 화장하는 여성을 보면 뭔가 불편합니다. 제가 쏘대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 | |
|---------------------|-------------------|
| 12 수박 한 통 | 36 새 동지를 트는 동생에게 |
| 15 여름은 나를 설레게 합니다 | 40 엄마가 우산을 챙기는 이유 |
| 19 아픔으로 만나 숲이 된 사람들 | 45 아빠의 인생 도화지 |
| 23 너를 잃지 말 것 | 51 나의 오랜 동반자에게 |
| 28 아파트 관리사무소 | 55 열녀 밀양박씨 |
| 30 스카프 주인을 찾습니다 | 59 고사리와 운전면허 |
| 33 아버지의 연탄불고기 | |



Letter 01

수박 한 통

애청자



어렸을 땐 과일 가게로 시집가라 할 정도로 모든 과일을 좋아했지만 유독 수박만은 제철이 와도 손이 가지 않는 과일이었다. 그런데 3년 전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수분 가득한 수박을 갈아 먹으면 울렁거림이 조금 가라앉았다. 엄마는 간 수박을 소분해 냉동해 두었다가 항암 치료를 받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에 꺼내주시곤 했다. 그렇게 난 항암을 버텨 수술을 하고 일상을 보내고 있다.

작년 겨울부터 ‘올해는 수박을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맘이 들었다. 간간이 수박 잘 고르는 방법을 찾아보곤 했다. 옛날에 과일 가게에서 주인아저씨가 삼각형으로 잘라 수박 속내를 보여주고 사 오던 시절은 지났으니까. 수박 배꼽이 작고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고 모양이 적당히 길쭉하고 밑 부분이 노

르스름하며 꼭지는 마르지 않고 분이 가득한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두드려봤을 때 ‘통통’ 하는 맑은 소리가 나는 게 달고 맛있는 수박이란단다.

그렇게 기억하고 기억했는데 요즘엔 배꼽이 작다고 해서 꼭 단 수박은 아니고 꼭지로 판단할 수는 없고 수박의 분이 많고 적음은 품종마다 달라서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라는 인터넷 영상을 보고 어찌 수박을 고를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런 고민도 잠시, 맛있는 수박을 고를 수도 있다는 걱정보다는 비싼 수박 가격에 주저하게 되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수박을 보며 살까 말까 망설여졌다. 비싸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 한 번 사 먹는 거야~’ 이랬다저랬다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기를 한 달쯤 지난 후 마트에서 수박 세일을 하는 거였다. 무려 30,000원 하던 수박을 21,000원에! 그동안 수박을 생각하며 지낸 시간을 생각하면 바로 사야 했지만 ‘샀는데 맛이 없으면 어찌지...’라는 생각과 ‘어떻게 무거운 수박을 들고 가지...’ 또 망설여졌다. 배달하려면 배달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맞추려고 원치 않는 소비를 해야 하는 현실에 그냥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21,000원짜리 그 수박이 계속 아른거렸다. 그러다 문득 ‘아~ 수박이 맛있으면 갈아먹으면 되지! 왜 찢어 먹을 생각만 한 거니!’ 이 생각이 드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수박을 사기로 100퍼센트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트로 갔다. 어머~ 그런데 하루 사이에 똑같은 수박이 3,000원이 올라 24,000원으로 판매가격이 달라져 있다. 잠깐 망설였지만 ‘그래, 그냥 사는 거야~ 사는 거야~’ 하며 수박을 골랐다.

나의 기준은 배꼽이 작은 것, 별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그리고 맑은 통통 소리를 찾는 것이었는데 한 농장에서 온 수박이니 배꼽 크기만 다를 뿐 다 비슷비슷했다. 맑은 통통 소리도 다 거기서 거기였다.

카드에 고심한 수박을 옮겨놓고서도 확신이 없으니 다른 수박이 맛나려나 자꾸 쳐다보게 되었다. 이러다 집에 못 가겠다 싶어 최대한 맑은소리를 들은 내 귀를 믿기로 했다. 미리 사둬도 되는 생필품으로 배달 가격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왔다.

배달된 수박을 자르기 전 ‘맛있어라~’ 기도하고 수박에 칼을 쏘고 살짝 쪼개는 순간 느낌이 왔다. 수박이 짭 하고 갈라지며 적당히 익은 진분홍 속이 보이면서 안심이 되었다.

아이고~ 수박 사는 게 뭐라고 이리 애를 썼을까. ‘수박이 맛 없으면 갈아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면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교훈 하나를 얻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달리 생각해 보자는 결심도 해본다. 그게 실천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해보자.

Letter 02

여름은 나를
설레게 합니다

박양종 |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한 낮 기온이 30도를 넘습니다. “아이고, 덥다” 하면서 구멍가게 앞에서 삼삼오오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더위를 식히고 거리에는 양산을 쓰거나 챙 넓은 모자를 눌러 쓴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이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설렙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름이라는 계절 속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 오면 저는 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 앞에는 아름드리 동구나무가 있었습니다. 백 년은 족히 넘었을 법한 큰 나무였습니다. 전깃불도 흔치 않던 시절, 그 나무 아래는 마을 사람들 사랑방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농사 이야기,

동네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큰아들이 다녀갔는지?”

“보약도 한 재 지어 주고 갔다더구먼.”

“아들 하나는 잘 났어.”

어른들은 부채질하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그 곁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놀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매미 소리에 눈을 떴는데 아주머니들이 표주박을 들고 무언가를 맛있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눈을 비비며 쳐다보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잤네?”

그러시더니 제 입에 기다란 면발 몇 가닥을 넣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먹어 봐.”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었는데 어찌나 시원하고 맛있던지 금세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그래? 더 먹을래?”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만 보면 졸랐습니다.

“엄마, 둥구나무 아래서 먹던 그거 해 줘.”

어머니는 웃으며 종종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음식의 이름이 메밀국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지금도 매미 소리만 들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잠에서 깬 아들 입에 조심스레 국수를 넣어

주시던 그 손길.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날 먹었던 메밀국수의 맛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여름은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친구 둘과 함께 밤이면 냇가로 천렵을 나갔습니다.

“햇불은 내가 들어.”

“깡통은 내가 들게.”

“좋아. 내가 앞장설게. 따라와.”

넓은 러닝셔츠를 말아 만든 햇불에 불을 붙이고 냇가를 누비면 마치 세상을 탐험하는 모험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물속에 불빛을 비추면 붕어와 피라미가 슬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기 있다!”

“빨리, 빨리!”

“잡았다!”

환호성을 지르며 물고기를 잡다 보면 깡통은 금세 가득 찹니다. 그러면 곧바로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둘 두 개를 주워 아궁이를 만들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장작 좀 더 가져와. 불이 약하다.”

누구네 발인지도 모르고 애호박을 하나 슬쩍 따다가 넣고 고추장을 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엉성하기 짝이 없는 요리였지만 그때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깔깔 웃고 떠들며 먹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면 달이 중천에 떠 있곤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집에 가야겠다.”

“오늘은 혼나겠다.”

부라부라 집으로 달려가면서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사립문을 살며시 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흠 어흠…”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회초리. 그때는 무섭고 억울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마저도 그 시절 여름 풍경의 한 장면입니다.

돌아보면 제 기억 속의 여름은 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동구나무 아래에서 웃고 떠들던 이웃들, 밤 냇가에서 모험을 함께하던 친구들 그리고 잠결에 깬 아들의 입에 메밀국수를 넣어 주시던 어머니, 서로 더위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던 사람들.

이제는 동구나무도 사라졌고 함께 천렵하던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손길 또한 추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면 그들은 모두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옵니다. 매미 소리 속에서 뜨거운 더위 속에서 어린 날의 웃음 소리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더위를 걱정하지만 저는 여름이 오면 가슴이 설렙니다. 이 계절이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Letter 03

아픔으로 만나
숨이 된 사람들

문미옥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올 해 지천명의 나이에 들어선 청주 사는 쉰 살 여성입니다. 살면서 여러 모임을 해봤지만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모임을 소개하려 해요.

우리 모임은 열 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는 마흔부터 일흔까지 사는 곳도 서울·천안·청주·부산·인천으로 제각각입니다. 어떤 모임인지 짐작이 안 가시죠?

우리는 지난해 암 요양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아픔을 견디고 서로를 붙들어 주며 투병의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유방암, 누군가는 자궁암, 또 누군가는 대장암과 췌장암을 앓았습니다. 암의 종류도 병의 깊이도 달랐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같은 두려움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예후가 좋다는 유방 상피내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암’이라는 말은 제게 위로가 안 됐어요. 몇 시간의 수술 끝에 한쪽 가슴을 완전히 절제해야 했고 수술 후 쇼크가 와서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몸속으로 퍼져 나간 피를 제거하기 위해 개복까지 해야 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다른 언니들과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암치료로 곱고 풍성하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두건으로 머리를 감춰야 했습니다. 식사 후 밀려오는 구역질과 고열, 한기와 무기력함은 말로 다 설명 못 할 고통이었죠. 어제의 내가 사라지고 오늘의 나를 버텨야 하는 시간.

하지만 그때마다 먼저 치료를 겪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길 잡이가 되어주었고 곁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들의 응원이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아니, 어찌면 서로를 붙잡고 함께 건너왔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치료를 마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포레스트(Forest)’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숲이 되어주자는 뜻입니다. 지치면 기대어 쉴 수 있고 길을 잃으면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숲.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지는 대전. 여행의 시작은 역시 맛집이었습니다. 맛있는 점심으로 배를 채운 뒤 계족산 황톳길 맨발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몇몇은 맨발이 부담스러워 운동화를 신었고 체력이 아

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왕언니는 중간에서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며 왕복 4킬로미터의 황톳길을 걸었습니다. 건조한 황토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발바닥은 금세 아팠습니다. 특히 내려오는 길은 체중이 실리면서 통증이 더 크게 느껴졌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온 우리에게 발바닥의 작은 통증쯤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라는 것ですよ. 산에서 내려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씻어내던 순간의 청량함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풀어놓기가 무섭게 놀이판부터 벌였습니다. 큰 상 두 개를 펼쳐 놓고 다음 날 커피값을 걸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탁구공을 계란판에 넣기. 병뚜껑 멀리 튕기기. 아이들 장난감인 스파이더 젤리를 창문에 던져 가장 오래 붙어 있기. 지금 생각해도 피식 웃음이 나는 게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진심이었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 MT를 온 학생들처럼 깔깔거리며 웃고 소리를 지르고 승리욕을 불태웠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에는 왕언니가 선물해 준 왕서방 파자마를 맞춰 입고 릴스 영상도 찍었습니다.

아래층이 문 닫은 가게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우리는 쉼 살도 예순 살도 일흔 살도 잠시 잊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웃으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처럼 놀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웃음소리는 아마 세상 어느 청춘들 못지않게 환했을 겁니다.

다음 날에는 온천에 들러 오랜만에 세신도 받았습니다. 몸에 남아 있던 묵은 때를 밀어내듯 지난 몇 달간 가슴속 깊이 쌓여 있던 두려움과 아픔의 흔적들도 함께 밀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암 환자 모임’이라고 하면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포레스트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밝고 누구보다 많이 웃고 누구보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병실에서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웃음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기보다 앞으로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픔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했고 삶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이지만 저는 아직도 삶의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흔아홉에 겪은 육체의 고통은 남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선물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모든 환우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해가 뜹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아도 언젠가 다시 웃을 날이 옵니다. 저희 포레스트가 그 증거입니다. 부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환우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내일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Letter 04

너를 잃지 말 것

우명식 | 경북 안동시 전거리길



우리 학교는 작은 대안 고등학교. 전교생이 14명 안팎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지. 이곳에는 평범한 길에서 조금 비켜난 학생들이 모여 있어.

연이가 우리 학교에 왔을 때는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긴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고 옷으로 팔을 감추었는데 살짝 봉대가 보였어. 자신을 해친 흔적이었지. 연이는 대화를 꺼리며 늘 혼자 다녔는데 어느 날 틈이 생겼어. 옷에 붙은 고양이 털 때문이었지. 나도 반려묘를 키우고 있었거든. 연이에게 고양이 이야기를 건넸더니 눈을 빛내며 말했지. 이름은 '푸름'이고 세 살인데 밥을 챙겨 주다 정들어 키우게 됐다고. 고양이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고 좋아하는 간식 이야기를 하

며 우리는 가까워졌어.

연이는 오랫동안 혼자였대. 가정폭력 속에 자랐고 엄마가 떠난 뒤에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숨 쉴 공간이 없었대. 한번 입을 연 연이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지. 우리는 어느새 단짝이 되었고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

연이는 BTS를 좋아했어. 나는 그 아이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래를 찾아 듣고 가사를 따라 적었어. ‘다이너마이트’를 같이 부르며 운동장에서 웃기도 했고, 나는 ‘진’이 좋다고 했고 연이는 ‘정국’이 제일 멋지다고 했어. 서로 다른 취향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

연이는 언제부터인가 간호사가 되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싶다고 했지. 그러다 그러다 어느 봄날, 연이가 커피를 들고 내 앞에서 있었어.

“대학생이 되면 제일 먼저 선생님께 오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붙잡아 준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게 작은 불빛 하나를 건네는 일이지. 이제 연이는 더 이상 내가 지켜보아야 할 아이가 아니야. 나를 울게 할 만큼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

아이들은 말로 하지 못한 이야기를 글로 꺼내 놓곤 해. 나는 아이들 글 속 상처에서 꽃이 피는 순간을 수없이 보아왔어.

철이도 그런 아이였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 자되는 시간문제였는데 철이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슬펐어. 어머니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철이는 낯선 아버지를 만나야 했고 그런 시간을 겪으며 마음 둘 곳을 잃어갔대. 그래서였을

까. 철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내달렸지. 그러다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 법의 문 앞에 서게 되었어. 나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오래오래 기다렸어. 기다린다는 건 누군가를 끝까지 믿는 일임을 그날 나는 알게 됐어.

돌아온 철이는 조금 달라져 있었고 변화는 분명했어.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썼어. 말로 꺼내지 못하던 마음을 문장으로 옮기면서 철이는 조금씩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했지. 나는 선생님이자 철이 편이자 말없이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지.

그렇게 시간이 쌓여가던 어느 스승의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철이가 품에 무언가를 꼭 안고 학교로 험레벌떡 달려왔어.

“선생님... 이거요. 비 맞을까 봐요.”

철이가 내민 것은 직접 뜨개질한 한 송이 꽃이었어. 그 아이가 품에 안고 ‘지키며’ 가져온 건 꽃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한때 자신을 내던지던 아이가 이제는 무언가를 지켜낼 줄 아는 사람으로 달라져 있었어. 나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받았어.

민수도 잊을 수 없는 학생이야. 초등학교 5학년 이후 처음으로 펜을 잡고 글을 써본다며 멋쩍게 웃던 민수는 입시 문제 풀이에만 익숙했고 자기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해 본 적은 없었대. 수업 시간에 민수는 늘 잠들어 있고 오토바이와 운동만 좋아했어. 학교에서 ‘짱’으로 불리던 민수는 꿈을 문자 망설임 없이 말했지.

“바다가 보이는 데서 짜장면 배달이요.”

“왜 하필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그냥요... 폼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 ‘폼’이라는 말 뒤에 어떤 갈증이 느껴졌거든. 나는 민수 곁에 오래 앉아 있기로 했어. 말을 건네기보다는 함께 책장을 넘기고 연필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 조심스럽게 진학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했지.

“민수야, 대학이라는 곳은 한 번 가볼 만은 하더라. 사회에 나갔을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민수에게 조용히 스며들어 보이지 않게 변화가 시작되었지. 책장을 넘기는 손이 멈추지 않게 되었고 지령이 글씨가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 민수는 인사도 배우기 시작했어. 화장실에 갈 때도 인사하고 돌아와서도 인사했지. 우리는 마주 서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났어. 그 웃음이 민수를 조금씩 바꾸었지.

민수의 마음을 다독인 건 글이었어. 문장은 서투르도 그 안에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기기 시작했어. 어느 순간 그의 글씨는 놀랄 만큼 단정해졌고 민수의 마음이 몸보다 먼저 반듯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

합기도에 몰두한 민수가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왔을 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라져 있었지. 거칠게 흔들리던 시간이 목표를 향해 단단히 묶이게 된 거야. 식단을 조절하느라 힘들다며 민수는 말했어.

“선생님, 배고파요. 닭가슴살만 먹으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투덜거리면서도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하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저...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유보다 더 예쁜 스타를 경호하는 거요!”

민수는 지금 경호학과에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어.

돌아보면 민수를 바꾼 건 거창한 교육이 아니었어. 한 사람 곁에 오래 앉아 있었던 시간, 그 시간을 통해 건네진 말 몇 마디 그리고 자신을 처음 바라보기 시작한 한 줄의 문장...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바뀌는 거야.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고 조금 달라도 괜찮아.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돼. 흔들려도 돼.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면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혼자 견뎌낸 시간과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날들이 결국 너 자신으로 남을 거야. 그러니 멈추지 말 것! 끝내 너를 잃지 말 것!

우리 학교 이곳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작은 불빛 같은 곳일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아이 하나 하나를 볼 때마다 아직 빛을 내지 않은 별들이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떠올리곤 해.

Letter 05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성옥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직업에 귀천이 없다? 글썄다. 도시 곳곳에 아파트 천지다. 갈수록 높아지고 많아지는 게 아파트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 올해로 25년째 근무 중이다. 지금 직장은 네 번째 아파트다. 한 가구당 2명씩만 거주한다 해도 몇백 명의 사장들을 모시고 일하는 곳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위 유지 관리가 주 업무다. 현 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면 세대 전유부분이다. 세대 안에서 고장 및 수리가 필요하면 세대에서 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세대 화장실 등에서 사용하는 배관 중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 부위이므로 아파트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입주민은 수도꼭

지를 갈아달라, 변기가 막혔다, 전등을 바꿔 달라는 등의 민원을 접수한다. 그리하여 세대 고장 수리는 세대에서 해야 한다고 안내하면 “내가 내는 관리비로 봉급 받아 가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관리소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밖에 못 하나? 일 똑바로 해라.” “관리비를 어디에 써먹는지 알 게 뭐냐?” 등 험한 소리를 하곤 한다. 예전에 비해 지금은 입주민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처우도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관리사무소를 보는 눈엔 의심이 가득하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경비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했다는 기사, 미화원과 승강기에 같이 탔다가 냄새로 인해 불쾌했다는 기사, 이로 인해 미화팀장이 사과문을 게시했다는 기사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지금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내 부모이거나 형제자매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리 대할 수 있을까?

그래도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직원들에게 수고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음료수라도 한 개 챙겨주시는 분이 많다는 것이다.

오늘도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이들은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관리사무소를 떠나지 못하고 근무하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관리사무소는 나의 평생직장이다. 희로애락이 함께했던 관리사무소 근무도 올해 12월 31일부로 퇴직을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여 파이팅입니다!

Letter 06

스카프 주인을
찾습니다

양창선 | 경기도 남양주 덕소로



얼 굴 좀 보자는 친구들의 성화에 모처럼 짬을 내 친구 집을 방문했다. 현관문 벨 소리에 뛰어나온 먼저 온 친구들이 반색이다. 식탁 의자에 둘러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난 인생사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 식사로 시골에서 가져왔다는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 맛있게 먹었다.

누구에게 질세라 수다 떠는 가정사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부부는 전철 시간에 쫓겨 먼저 일어섰다. 그러자 친구는 모두에게 다 줄 수는 없고 멀리서 온 너만 준다고 비닐봉지를 집사람 손에 쥐여주면서 두릅하고 초고추장을 싸주었다.

한 손엔 봉지, 한 손엔 손가방을 들고 총총걸음으로 숙대입구역 8번 출구 전철역 계단을 앞서 내려가던 집사람이 “앗!” 소리와 함께 데굴데굴 몇 계단을 구른 후 널브러졌다. 황급히



뛰어 내려가 아내를 일으키려 해봤지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일으킬 수가 없었다.

“119 부를까요? 머리는 괜찮으세요?” 하는 소리에 제정신으로 돌아와 젊은 연인인 듯 두 사람의 도움으로 아내를 계단에 앉혔다. 젊은 연인은 연신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엑스레이도 꼭 찍어 봐야 해요. 119 부르겠어요.” 애태우는 이들에게 “고마워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어서들 가봐요. 정말 고마워요.”

가려던 아가씨가 저 아래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 국물이 푹 푹 떨어지는 고추장 비닐봉지를 주워 들고 오기에 “버려요. 가져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 망설이던 아가씨가 목 스카프를 풀어 돌돌 감아 싸주면서 “가지고 가세요. 귀한 선물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펍 하는

소리와 함께 비닐 뭉치 가방이 굴러오는 것을 보았기에 주워 온 것이예요” 말하고 돌아서는 앳된 아가씨의 뒷모습이 선녀처럼 선하게 남아 있다.

참고 집에까지 가 보자는 생각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부부는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와 전철 타고 이촌역에 도착하여 경의선 환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람 전화기를 찾아보니 전화기가 없었다. 그래서 집사람 전화기에 전화했더니 젊은 남자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기 주인이세요? 숙대입구 전철역 하단 계단에서 주웠는데 금방 오시면 기다리고 아니면 입구 앞 치안센터에 맡겨두고 가겠습니다.”

친절하게 말해주었다.

“네 치안센터에 좀 맡겨주세요.”

고추장 통과 같이 굴러떨어진 전화기를 주워준 그 젊은 남자분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전화기는 치안센터에 가서 친절한 경찰관에게 받아 올 수 있었다.

그날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이 도와주셨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넘어질 때 아예 받아 안아주셨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다. 하느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는 이럴 때 하라는 말인가 싶었다. 넘어져 뒹구는 볼품없는 늙은 노인네를 내 부모처럼 어루만지고 끝까지 돌봐 준 두 젊은 연인. 값진 목스카프를 풀어 고추장 통을 싸 안겨 준 착한 아가씨를 여성시대를 통하여 찾아 두 손 꼭 잡고 찬찬히 보면서 정말 감사했다고 사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Letter 07

아버지의 연탄불고기

강신욱 |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저는 울산에 웅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여섯 자매 중 한 명입니다. 요즘 저희 자매들의 단톡방은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최근에 음식에 얽힌 옛 추억들을 글로 정리해 보기 시작했더니 자매들 마음속 깊이 잠겨 있던 ‘추억 창고’의 문이 한꺼번에 활짝 열려버렸거든요.

“언니, 이것도 기억나?”

“그땐 그랬지!” 하며 쏟아지는 메시지들을 보고 있으면 흘러져 있던 사랑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어지는 기분이 들어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덕분에 저희 여섯 자매는 매일 옛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우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유년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름이면 띄약벌 아래서 고소한 미숫가루를 만

들던 일, ‘뽕’ 소리와 함께 쏟아지던 튀밥 기계 앞에 줄 서던 기억은 여전하고요. 특히 언니들이 학교 가정 시간에 배워와 솜씨를 뽐내며 만들어주던 타래 과자와 달콤한 도넛은 최고의 별미였죠. 그때 그 도넛을 튀기다 둘째 언니가 기름에 화상을 입었던 아찔한 기억마저도 이제는 다 같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선명한 추억이 되었네요.

하지만 그 수많은 음식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 여섯 자매 모두의 가슴을 한꺼번에 뭉클하게 만드는 특별한 메뉴가 있습니다. 자매들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때 그 소불고기’로 흘러갔어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시절의 불향을 그리워하며 다들 한마디씩 마음을 보태게 되는 음식, 바로 오직 우리 아버지만이 완성할 수 있었던 ‘미슐랭급’ 연탄불 소불고기입니다.

아버지는 예전 직장 동료분들과 오랜 시간 ‘소 잡는 계모임’을 하셨는데 일 년에 한 번씩 다 같이 소 한 마리를 공동으로 잡는 날이 공식 행사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덕분에 그날부터 우리 집 식탁은 축제였습니다. 육개장은 물론이고 평소 돼지고기를 넣던 잡채에도 소고기를 듬뿍 넣어 고기반찬이 넘쳐났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압권은 아버지가 직접 양념부터 굽기까지 도맡아 완성하시던 불고기였습니다.

이 요리만큼은 엄마의 도움도 필요치 않았어요. 아버지는 직접 고기 양념을 배합하고 밀간을 한 뒤 마당 연탄불 위에 자리를 잡으셨죠.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며 불향이 진해지면 우리 자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버지 주변으로 웅기중

기 모여들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온몸을 덮쳐도 그 향기가 마냥 좋아 피할 줄도 몰랐던 시절, 아버지는 불판 위에서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톱 집어 우리 입에 차례차례 넣어주셨습니다. 그 뜨겁고 달콤한 고기 한 점은 세상 그 어떤 산해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딸만 여섯인 집이라 매일의 밥상은 늘 분주했고 식구가 워낙 많다 보니 항상 조금씩 부족한 듯 느껴지곤 했어요. 돌이켜보면 그 많은 입을 먹여 살리기 위해 쉴 틈 없이 부엌을 지키셨던 엄마의 고생이 얼마나 컸을까요. 소고기를 받아오는 날이면 엄마는 마치 휴가를 받은 사람처럼 기뻐하셨는데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아 하시는 그 불고기가 엄마에게는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쉬게 해주는 든든한 선물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두 분의 사랑이 어른이 된 지금 가슴 저리게 감사합니다.

요즘 그 시절의 식탁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연탄 연기마저 즐거웠던 그 향기 속에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투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그 기억은 우리 삶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께 받은 넉넉한 사랑을 영양분 삼아 저희 여섯 자매는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아버지의 빈자리를 우리 자매들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려 해요. 우리를 단단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그 사랑의 식탁 앞에 모여 앉습니다.

Letter 08

새 동지를 트는 동생에게

김미옥 |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전 화 02-789-1004를 누르고 “어서오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또랑또랑하고 맑은 양희은 진행자의 목소리만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 시도와 포기를 반복하다가 여성시대 사서함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이 말을 결국 일반 사연 글로 바꿔 적는다.

동생아~ 너도 익히 알다시피 수변 길을 러닝하며 스쳐 가던 생판 모르는 이도 멈춰 뒤돌아 쳐다볼 만큼 아니 심지어 몇 번이나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개성 강한 내 목소리와 말투니 이렇게 글로 적는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땡’ 문자 알림음에 내용을 확인하니 <오늘 이 카페 갔는데 좋더라.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몰랐지? 다음에 같이 가자.> 이번에도 카페 블로그 후기 URL 링크가 포함

된 문자다. 요즘 네 문자의 태반은 동네 근처 맛집과 카페, 명소 URL 링크를 첨부하면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라는 내용이지. 아닌 척하면서 부러 가볍게 얘기하지만 떠나려니까 밝히는 게 많지?

이 집 주변에는 이상하리만치 큰 새들이 많아 너의 반려묘 ‘콩이’와 ‘다미’는 하루 종일 목을 빼며 새들의 모습을 쫓느라 지루할 새가 없었어.

무성해진 부피감으로 통창 밖까지 성큼 다가와 지척에 보이는 모 씨 문중 묘를 품은 산은 사시사철 강약이 있을 뿐 항상 생명력과 안온함을 전해줘. 변화 없이 멈춰있는 강이 보이는 집보다 매년 반복되는 계절이지만 매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산이 보이는 이 집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너는 비싼 강아지 아파트 안 부럽다고 했지.

무엇보다 집 가까이에 있는 수변 길을 빼놓을 수 없었지. 너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고 나는 ‘제일 애정하는 빵집에 닿는 여정’이라고 정의하는 천 주변 산책로를 걸으며 공무원의 작품일지, 아이들과 아빠의 합작품일지 설왕설래했던 군데군데 보이는 돌탑과 내 빼격거리는 무릎 관절을 경중경중 뛰게 하는 징검다리 그리고 제 갈 길 가느라 훌쩍 떠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철새들이 있던 수변 길은 뽁뽁한 건물 숲으로 포위된 곳에서 살아서 더운 계절이면 숨이 턱턱 막히는 내가 잠시 숨 쉬러 가는 보물 같은 곳이야.

걷는 이보다 러너들이 더 많은 이쪽 보행길에 반해 무성한 녹음으로 그늘지고 호젓한 건너편 자전거 전용 길이 좋아 보

여 “여기 사는 동안 자전거 배워서 저 길 많이 다니지!” 아쉬움에 타박처럼 나간 내 말에 “자전거 타는 거 무섭단 말이야!” 네 억울한 대꾸가 돌아왔던 그 순간의 햇살, 멀리서 전해지는 열은 아까시향, 눈송이 같지만 눈보라처럼 눈앞으로 몰아치던 꽃가루, 지나친 사람의 손에 들린 포장 음식 냄새까지 작은 조각들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겠지.

살았던 정을 제하더라도 지금껏 지나왔던 집들 중 가장 살기 좋았다는 이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 간다며 너는 아쉬워했지. 떠나야 하는 아쉬움에도 너는 다음 집의 후보로 꼽은 곳을 보며 “여기가 그나마 괜찮은데 이 꽃무늬 벽지는 못 참겠어. 벽지는 바꿔야겠지? 페인트칠하는 게 좋을까?” 앞날에 대한 작은 설렘과 희망을 품고 있었어.

전날까지만 해도 이사 갈 곳을 어떻게 고칠지 속닥거리던 네가 다음날 축 처져 돌아와서는 “단칼에 퇴짜 맞았어. 반려동물 절대 불가래. 그럼 공지를 해놓던지. 다른 집은 다 명시해 뒀서 여긴 허용되는 줄 알았지. 주인이 절대로! 동물 안 된다고, 내가 뭐 물으려고 입 떼기도 전에 얼마나 강조하는지. 돌아오는 길에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닌가 급 불안해지더라. 돈 열심히 벌고 모으면서 나름대로 잘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갔다 오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 순식간에 가난해지는 기분은 매번 경험해도 적응이 안 되네.”

그러고는 다음날 또 언제 풀 죽어 있었냐는 듯 “그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겠지. 어제는 갑자기 불안이 커지면

서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아.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계속 찾아보면 되지.”

그러고는 씩씩하게 출근하는 너. 매일 새로운 사건·사고가 벌어지는 혼돈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반짝반짝 빛나던 충기는 색이 바랬고 퇴근 후에는 발냄새를 흘 뿌리며 돌아오는 내 동생. 전월세 가뭄에 더해 반려묘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하는 우뚝 솟은 험난한 산이 네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너라면 어떤 결정을 하든 새로운 터전에서 멋진 동지를 틀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마침 여성시대가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가 이 시기의 너에게 위로가 되어 줄 것 같아 옮겨본다.

“새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한다. 털갈이도 그중 하나다.’ 조류학자 필리프 뒤푸아의 말입니다. 오리도 그중 하나로 봄이 되면 털갈이를 하는데요. 이 기간엔 육체적으로 취약해지고 일시적으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위험한 일도 생기지만 결코 털갈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겪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한껏 몸을 낮춘 채 기다리죠.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새들도 아는 걸까요?”

불필요하게 처지를 비관하지도 조급해 하지도 말고 과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남이 뭐라 하든 네게는 남득이 되는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항상 널 응원한다.

Letter 09

엄마가 우산을 챙기는 이유

애청자



오늘은 저희 엄마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셨던 분이 갑자기 안 계시니 엄마는 하루아침에 말수가 확 줄어드셨습니다. 혼자 계신 집은 너무 조용했고 엄마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늘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입맛이 없다. 괜찮다. 너희나 잘 챙겨라.”

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엄마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집에 와서 손자·손녀 얼굴을 보더니 정

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네. 할머니랑 같이 밥 먹자.”

아이들 재잘거리는 소리에 엄마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우울해하시던 모습 대신 밝은 미소가 돌아오는 것 같아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이름을 잠깐 헛갈리시거나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시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가 아이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은 누구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가장 사랑하던 손자·손녀를 보고 누구냐고 묻는 엄마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점점 더 많은 것을 잊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가스 레인지에 국을 올려놓고 잊어서 냄비가 까맣게 타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현관문을 열어둔 채 밖으로 나가셔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마다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하지...”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한참 우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가까운 데 나가서 살고 싶다. 서로 한 번씩 들르는 걸로 하자.”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같이 살아야지.”

하지만 엄마는 끝내 고집하셨고 결국 집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얻어드렸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왔니, 딸?”

그 한마디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제 얼굴을 빤히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세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면 늘 문 앞에 우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챙겨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놔둔 거야?”

“아닌데?”

비가 올 때마다 어김없이 우산은 문 앞에 있었습니다. 이상



한 느낌이 들어 결국 현관 앞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내리던 날, 다음 날 아침 문 앞에는 역시 우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엄마가 계셨습니다. 맨발로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와 문 앞에 우산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주말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누구세요?”

애써 웃으며 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창밖으로 소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가 커지자 엄마가 별떡 일어나 우산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엄마는 다급하게 우산을 챙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비 온다. 우리 딸 우산 없이 학교 갔어. 예전에 비 맞고 펄펄 걸렸어. 비 맞으면 안 된다.”

그 순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도 이름도 잊으셨는데 하필 그 기억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학교에 갔다가 심하게 앓았던 저를 엄마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잊어도 사랑으로 새겨진 기억은 끝내 남는 건가 봅니다. 엄마의 기억 속 저는 아직도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어린 딸인가 봅니다.

양희은 김일중 님,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네요. 아마 집에 가면 문 앞에 우산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을 볼 때마다 엄마의 사랑은 아직 제 곁에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Letter 10

아빠의 인생 도화지

고은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사랑하는 서하야, 하람아! 우리 두 아들, 우리 고 씨 형제는 아빠 옛날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잖아. 오늘은 아빠 젊을 때 얘기해줄까?

사람들은 10대나 20대 시기를 화려하고 걱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빠는 아빠의 젊은 시절이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어. 아빠의 젊은 시절은 투명해서 색이 없었던 것 같아. 아빠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야. 춘천 할아버지께서 처음 너희 엄마를 보고는 “너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는구나~” 이러셨을 정도거든.

타고난 성격이 밖으로 돌아다니고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고 크게 감정의 변화가 없었어.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은 크게 놀라거나 감정 변화가 많지 않다고

해서 ‘침착이’었어.

아빠가 어려서 춘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 때는 농촌에 공장이 모여 있는 농공단지 안에서 살았단다. 주말이 되면 공장단지 전체에 딱 우리 가족만 남았어. 춘천 할아버지께서 가구 공장에서 노동도 하고 공장의 경비 일도 하셨기 때문에 1년 365일 공장을 지키셔야 했어.

주말이 되면 우리 가족만 남은 한적한 공장 공터에서 혼자 캐치볼을 하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시간을 보냈지. ‘가족여행’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 외갓집으로 딱 한 번 해봤고 어디로 놀러 가거나 특별한 일을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 그리고 조금 가난했던 것 같아. 같은 옷인데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옷이 왜 더 비싼지 춘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잘 모르셨지. 아셨어도 여유 없는 형편에 어쩔 수 없으셨을 거야. 아빠 성격에는 멋을 부려야 하는 사춘기에도 유명 브랜드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가지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주변이 되어 교무실에 들어가는 요일에는 껌맨 양말은 피하도록 일주일 치 양말 계획을 세우고 여행사 로고가 박힌 공짜 가방은 로고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 메고 다니며 사춘기 시절을 보냈어. 힘든 것은 아니었고 할 수 있는 선에서 환경에 순응하며 공부했어.

가난한 형편에도 당신들을 희생하며 자식에게 최대한 해주시는 춘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뭘, 어쩔 수 없지. 별수 있나!’라고 생각하며 생활했지.

타고난 성격에 더해 이런 환경 때문인지 어느 날 돌이켜보니 아빠는 아름다움이나 감동 같은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았어.

단풍 진 가을 산에 가도 아름답다기보다는 ‘낙엽은 누가 치우나...’ 싶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감동보다는 시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남에게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대학교에 가면서 아빠는 성격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어. 대학이 활달하고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분위기여서 아빠도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이 부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술자리는 다 찾아다니고 놀 수 있는 곳에는 빠짐없이 참여했는데 1학기가 지나고 혈액검사를 하니 급성 간염이 의심될 정도로 건강만 나빠지고 스스로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어. 아빠의 인생 도화지는 작고 투명해서 스스로 색을 나타내기도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색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지. 돌아보니 아빠의 20대는 희망찬 색도 그렇다고 우울한 색도 아닌 투명한 무색의 시기였어.

중간에 진로를 바꾸느라 다른 대학교에 다시 입학하고 역시 진로 문제로 입학이 늦었던 너희 엄마를 만나 결혼했어. 엄마도 기념일이면 꽃다발보다는 차라리 치킨이나 삼겹살 먹는 것이 더 남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화려함과 거리가 있었어.

아빠의 인생 도화지는 너희 엄마로 인해 더 넓어지고 흰색 바탕이 칠해졌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의 색을 잘 볼 수 있게 투명한 데서 흰색으로!

우리 서하가 엄마, 아빠에게 오던 날, 서하는 한쪽 눈만 뜬 채 분만실 밖에서 아빠를 만났어. 그때 아빠 눈에서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더라! 지금도 눈물이 메마른 편인 아빠 성격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

‘아가야, 너는 누군데 나를 뻔히 쳐다보며 눈물짓게 하니?’

그렇게 생각한 순간 아빠 도화지에 선명한 물감이 한 방울 툭 떨어졌지. 서하는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니 아마도 붉은색 물감이었나 보다. 서하는 트로트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어린이집에서 가장 맵시 있게 선생님 울동을 따라 하고 장난스러운 표정과 기상천외한 말을 던지며 아빠의 인생 도화지에 화려한 붉은 물감을 계속 채워나갔어. 차가 없던 그 시절 아픈 너를 데리고 병원에 가던 택시 안에서 네가 토하는 바람에 길 한가운데 덩그러니 내려졌는데 옷에 토하고 우는 너를 달래며 병원까지 안고 걸어간 그 일도 아름다운 분홍색 추억이 되었어.

그리고 하람이가 태어났지. 형이 태지(胎脂) 없이 태어나서 아빠는 태지가 무엇인지 잘 몰랐거든? 그런데 태지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채 태어난 하람이를 보며 ‘아가야, 얼굴에 무엇이 잔뜩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너는 누군데 나로 하여금 너를 이토록 걱정하게 하니?’ 생각했지. 아빠는 남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 남을 걱정하는 마음도 작은데 아빠 팔뚝보다 작게 태어난 아기가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에 놀랐어. 태지가 태아의 몸을 보호하느라 감싸고 있는 물질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단다.

그때 내 마음 도화지에 떨어진 물감은 남을 배려하고 잘 화합하는 하람이니까 푸른색일 거야. 뱀 흉내를 내고 힘든 일도 엄마 아빠를 위해 “괜찮아, 해볼게!” 하며 해내는 하람이는 가을 하늘 같은 푸른색으로 아빠의 인생 도화지를 채워나가고 있구나. 네가 다리를 다쳐서 아빠가 캥거루처럼 안고 여름철 더운 거리를 다닐 때도 너는 아빠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푸른색이었어.

서하가 아빠와 놀다가 콧잔등에 흉터가 남도록 다쳤을 때는 침착하던 아빠가 온몸에서 땀이 나고 눈물이 나며 부들부들 떨었지. 하람이가 넘어져 눈썹이 찢어졌을 때 아빠는 ‘저 찢어진 상처가 차라리 나에게 옮겨오기를!’ 수없이 빌었다. 엄마가 아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너희는 아빠 마음을 쉽게 움직이는구나.

그렇다고 아빠의 도화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 가서 산호초가 있는 푸른 바다에 들어갔잖아. 아빠가 그때 처음 한 생각은 ‘바다를 직접 보나 영상으로 보나 대체 무슨 차이?’였거든. 아빠는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 그런데 서하가 스노클링 장비로 물 속 열대어를 관찰하고 하람이가 낚시로 열대어를 잡는 모습을 보면 혹 그 장면을 놓칠세라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며칠을 밤새며 가족 기념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 속 너희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내 모습이 스스로 우습더구나.

서하야, 하람아! 아빠의 작고 보잘것없던 투명 도화지는 너



희를 만나고 나서 너희와의 추억을 담기 위해 크기는 한없이 커지고 너희의 마음을 담으면서 화려하고 다양한 색이 칠해지고 있어.

어제 저녁 ‘아빠와의 놀이 시간’에 했던 보드게임 때문에 웃다가 너희 형제도 쓰러지고 아빠도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는데 너희와 매일 나누는 그런 작은 사건들이 아빠의 10대, 20대 전체보다 더 큰 의미와 무게를 지닌단다. 아빠는 너희를 만난 때부터 너희와 함께하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움과 활력이 가득한 시기 같아.

우리 고 씨 형제! 앞으로도 건강히 행복하게 아빠의 마음을 채워주렴. 사랑한다.

Letter 11

나의 오랜
동반자에게

최병기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차를 바꾸는 일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함께 걸어온 연인을 떠나보내는 일과도 같았다.

십 년 전 처음 너를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차량 전 시장 한편에서 조용히 서 있던 너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특히 뒤돌아선 너의 사방사방한 모습이 나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나는 그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너를 내 삶으로 데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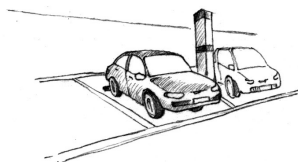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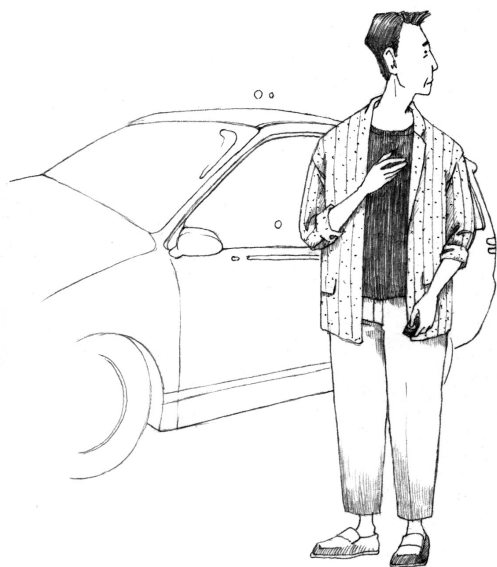
그 후로 너는 내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숨 쉬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너의 문을 열었고 출근길에는 너와 함께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직장으로 향했고 퇴근길에는 하루를 마감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집으로 향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와이퍼를 쉼 없이 움직이며 내 시야를 닦아주었고 눈 오는 겨울 새벽에는 차가운 몸으로 가장 먼저 길 위에 나섰다. 사람들은 차를 단순한 기계라고 말하지만 오래 함께 지내다 보면 차에도 숨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기분 좋은 날에는 엔진 소리마저 가볍게 들렸고 내가 지쳐 있을 때면 나를 위로해 주듯 너는 더 부드럽게 달려 주었다.

몇 해 전 전주에서 장기 교육을 받을 때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밤 고속도로 위에는 물안개가 자욱했다. 앞차의 불빛도 흐릿하게 번지는 길 위에서 나는 연신 핸들을 고쳐 잡으며 긴장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마음 졸이며 비상등을 켜 채 천천히 달렸는데 그날 너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갈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가족과 베트남 여행을 떠나던 날도 기억난다. 커다란 캐리어들을 품에 안고 인천공항까지 달려가던 너의 뒷모습이 유난히 든든했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내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나는 동안에도 너는 그 자리에 남아 우리의 무사한 귀환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교육원 주차장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공무원들의 크고 화려한 차들이 많았다. 그 사이에 선 너는 작고 소박했다. ‘이제는 좀 더 크고 멋진 차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참 많은 길을 달렸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 길도 지나고 장맛비가 무섭게 내리던 여름 도로도 건넜다. 은행잎이 떨어지는 가을 도로와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 새벽에도 함께 달렸다. 그 시간 속에는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무리하게 출근길에 나섰다가 미끄러져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다. 사고 후 찌그러진 너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 내 마음도 함께 울었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나는 괜히 미안해서 한동안 네 앞에 서기가 힘들었다.

또 어느 가을날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와 부딪혔을 때는 너는 열흘 넘게 자동차 정비소에 누워 있어야 했다. 병원 입원실에 가족을 두고 돌아서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텅 빈 주차장을 바라보며 괜히 허전했고 돌아오는 길은 길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낡아가는 몸으로 너는 끝까지 나와 동행하였다. 이제는 너의 다리도 많이 닳았고 심장도 예전 같지 않다. 시동을 걸 때마다 가쁜 숨 소리가 들리고 오래 달린 날이면 너도 몹시 지친 표정을 짓는다. 아마 이별의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내 곁으로 오고 있었다.

새 차를 계약하고 돌아오던 날 나는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는데도 기쁘기보다는 오래된 연인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사람들은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설렌다고 말하지만 나는 오히려 네가 없는 주차장을 먼저 떠올렸다.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의 품으로 가게 되겠지. 부디 새로운 주인은 네 낡은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으면 좋겠다. 오래 달려 닳아버린 부분도 정성껏 고쳐주고 네가 다시 힘차게 길 위를 달릴 수 있도록 아껴주었으면 좋겠다.

주차장 한쪽에 마지막으로 서 있는 너를 바라본다. 십 년 동안 너는 단 한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삶이 무거웠던 순간에도 너는 묵묵히 내 삶의 바퀴가 되어주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안녕, 나의 오랜 동반자여.

Letter 12

열녀 밀양박씨

이은모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증조할머니 이야기인데 1955년 당시에 우리 지역의 유림과 도지사, 문교부 장관 등 사회 각계 명사들로부터 곧은 절개를 지킨 열녀(烈女)로 추천받은 분입니다.

전통 유교 문화에서 ‘열(烈)’이란 단순히 강하다는 뜻을 넘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바른 신의를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육십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몸이 불편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현모양처로 사셨습니다. 할머니를 열녀로 추천한 당시 기록을 보면 가난을 개의치 않고 효자 온달과 결혼해 그를 당당한 영웅으로 키워낸 고구려 평강공주의 높은 행실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분의 혼인에는 남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셨고 집안 형편도 넉넉지 못했습니다. 고조할아버지께서 자식을 위해 혼처를 구하던 중 집안이 가난했던 증조할머니의 친정아버지가 중매쟁이의 말만 듣고 덜컥 혼인을 약속하셨던 모양입니다. 나중에야 신랑의 상태를 알게 된 친정아버지가 혼약을 깨려 하자 당시 꽃다운 나이였던 증조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른 믿음과 신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혼인을 허락하셨고 혼인을 상징하는 기러기와 사주단자인 납채까지 받았으니 저는 이미 이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어찌 신의를 저버리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의 서슬 퍼런 유교 사상이 마음의 중심에 있던 구한말이라 1884년 봄날 증조할머니는 혼인을 위해 가마에 오르셨습니다.

결혼 후 효성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을 공경하며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던 남편으로 인해 가정 형편은 늘 곤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1911년 계룡시 두계역 철도 공사장에서 떡과 과자를 팔아 쓰러져 가던 집안을 일으켜 세우셨고 평생 쌀방아 절구질과 무명길쌈으로 품을 파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대소변을 모두 받아내고 밤마실 한 번 다니지 않으며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보살

피셨습니다. 두 분은 60년이 넘는 세월을 해로하셨습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40~50세도 되지 않던 그 시절에 80세와 85세까지 장수하셨으니 할머니의 눈물겨운 간병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기적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생전의 모습은 모르지만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증조할머니의 공덕을 기리는 ‘정려각’을 세우던 날의 풍경은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친할머니와 당숙모님이 인부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단청 화공이 큰형님 등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주며 웃던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예부터 우리 집안은 8촌 간에 모여 제사를 지낼 정도로 우애가 깊어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했으나 이제는 친척들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제사도 축소되거나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못했던 정려각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기와가 파손되고 서까래가 부식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죄송했습니다. 은퇴 후 저는 단청 교육도 받고 종친회와 힘을 모아 마침내 지난해 4월에 정려각의 전면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전통 암수 기와를 엮고 궁궐이나 사찰에 쓰는 화려한 금단청으로 새로 단장했습니다. 기둥머리를 좌우로 연결하는 ‘창방’과 서까래를 받치는 ‘도리’ 그리고 원형 기둥에 저도 직접 단청을 올렸습니다. 서까래인 ‘연목’에는 우리 전주 이씨의 상징인 배꽃 문양을 수놓았지요.

지난해 늦가을 시제 때 새롭게 단장한 정려각 앞에 온 일가 친척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한자 축문

대신 큰형님이 알기 쉽게 한글 축문을 낭독했고 제가 수집한 증조할머니의 행적을 후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려각 보수를 축하한다고 친구들이 보내준 서예, 동양화, 사진, 서양화를 함께 전시하여 행사의 격을 높였습니다. 상량식에는 이번 수리 공사에 참여하고 마음 보탠 후손 65명의 이름을 적은 작은 현판을 걸었습니다.

한편 집안에 깊숙이 보관되어 열어볼 때마다 바스러지던 한문 원본 문서들을 영인본으로 제작하여 각 집안에 배부했습니다. 또 디지털 앱과 인공지능(AI) 그리고 교수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한글 번역본으로도 세상에 다시 냈습니다. 이 소중한 기록을 모아 마침내 가례집 2집을 발간하고 지난 한식날 조상님 묘역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가슴속에만 맴돌던 숙제를 2년 만에 마무리 지은 순간이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 빠르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증조할머니처럼 아무 조건 없이 '신의' 하나만 믿고 평생을 바쳐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고 말입니다. 자극적이고 이기적인 이야기가 넘쳐나는 요즘 세상이기에 '바른 신의'를 증명한 밀양 박씨 우리 증조할머니의 57,187일간의 위대한 여정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정려각이 아직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조급해하지 않으렵니다. 세월이 자연스레 해결해 줄 것이며 그 값진 결실을 보는 것은 다음 세대 후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Letter 13

고사리와 운전면허

송종현 | 경남 김해시 분성로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외갓집에 가서 캐온 고사리 작업이 끝났다. 작년에 처음으로 고사리 채취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양이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고사리 작업이 끝나고 든 생각이 ‘올해 상반기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이다. 그만큼 작업이 고되고 힘들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밭에서 캐온 고사리의 독성을 빼기 위해서 솥에다가 삶고 그것을 외갓집 마당에 말리는 작업인데 이렇게 힘들고 고된 작업을 우리 부모님과 이모님은 3~4년 전부터 하셨으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동시에 내가 조금 빨리 운전했으면 이제 70세 가까이 되시는 아버지의 운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렸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08년 스무 살, 대학 입학에 실패하고 그해 7월 육군에 자원입대를 확정 지었을 때 어머니가 “너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나 따라!” 명령 같은 권유를 하셨다.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차종을 1종 보통을 신청했다. 그때 당시 ‘남자는 1종 보통을 따야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1종 보통을 쳤는데 필기시험부터가 대학수학능력 시험보다 어려웠다. 70점이 합격인데 첫 번째 시험에서 68점을 받고 떨어졌지만 공부도 대충했기에 다음에는 붙겠다 싶었다. 그런데 이후 공부를 했는데 68점, 68점, 66점, 58점 점점 합격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6수 끝에 그것도 70점으로 겨우 붙었다. 붙은 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네가 하도 계속 떨어져 가지고 내가 점 보러 갔다 왔다. 우리 아들 운전면허 시험 붙나 안 붙나 물어봤다.”

그만큼 나에게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20살 때 겪은 고난 아닌 고난이었다. 그 이후 기능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까지 단번에 붙어서 1종 보통을 땀건만 몇 달 뒤 군대에 갔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탄 운전면허를 장롱면허로 만들었다.

그 후 군 전역을 하고 대학에 가고 어학연수도 가고 취업 공부 등 장롱면허를 더욱더 장롱을 넘어서 금고에 가둘 정도로 운전을 못 했다. 아니 안 했다. 왜냐하면 취업해서 내가 번 돈으로 차를 사서 내가 직접 운전하고 싶은 나만의 다짐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고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고 다른 곳에 취업한다고 자격증, 토익 공부 등 이러저러한

평계로 운전을 안 하게 되었다. 그러다 한창 공부를 하고 있던 재작년 겨울 어머니가 대뜸 이런 얘기를 하셨다.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취업이 되겠나? 일단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도울 겸 운전이나 한 번 제대로 배워서 몰아봐라.”

처음에는 그렇게 답하지 않은 말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꺾고 싶지도 않았고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언젠가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 얼굴을 보았다. 그때 연세가 65세. 일도 고단한데 운전까지 하시니 정말 피곤한 얼굴이었다. 어머니의 말씀과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내 고집을 꺾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운전면허 학원에서 연습 주행을 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운전 제대로 맛보게 하려고 중고차 판매장에 가서 소형 SUV 차를 구매하셨다.

나는 그 차로 2025년 2월부터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기계유공압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나의 업무는 거래처에 물건 납품이나 부품을 사 오는 것이었다.

운전이 조금 익숙해질 무렵에 그해 4월부터 고사리 채취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으로 본 고사리의 모습은 늘 반찬으로 보는 모습과는 달랐다. 푸른색 줄기에 우렁차게 솟은 모습이 마치 작은 대나무 같았다. 채취하면서 풍긴 풀 냄새도 좋았고 양도 많아서 기분이 두 배가 되었다. 그렇게 6월 초까지 꺾은 나의 첫 고사리 채취도 끝났고 올해도 6월 14일을 끝으로 두 번째 고사리 채취도 끝났다. 고사리 채취가 끝

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곤히 잠드신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 ‘아~ 내가 조금 더 빨리 운전대를 잡을걸...’이었다.

사실 운전을 처음 했을 때는 짧게만 해서 그런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지 일 때문에 저 멀리 대전도 가 보고 새벽 운전, 밤 운전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 차를 타고 다녔던 외갓집으로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보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해서는 안 될 졸음운전도 해 봤으니 말이다. 그래서 운전대만 잡으면 자연스레 아버지 생각이 먼저 난다. 이제는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다른 동생한테도 운전면허 빨리 따라고 내가 중용할 정도다.

“나처럼 되지 마라. 운전을 배워서 부모님 아플 때 모셔다 드려라. 그것만으로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그 동생은 내가 2년 동안 운전면허 따라고 계속 뭐라고 했는데 지난 6월 19일 드디어 필기시험에 합격했단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능시험 등록을 하러 간다고 했다. 나름대로 나의 권유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야 할까?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서 다행이다.

지금 아버지 회사 내 자리 컴퓨터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맞은편에 아버지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가 운전해서 가족끼리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12년 전 가족여행으로 남해에 갔었는데 너무 좋았다. 내가 운전해서 가는 가족여행이 벌써 기대가 된다.

누의 인생살

노영환 | 서울서대문구 선화동

저는 5대 주부의 노영환이라고 할만한 가장입니다. 제사 여의대를 처음 접한것은 50년대 중반 고복 집안 봉화생 때 부터 시작 합니다.

서대문에서 동네의 작은공장에 다니면서 근무 생활에 들어 들은 여의대 선생을 들었고 기억에 남거나 장래적인 선생이 있으면 저에게 들려주시길 했지요. 물론 기업은행각 지점 광우에서 매일 발행되는 책자를 주어진 심부름을 시키며 여의대를 갖다 드렸는데 저도 가끔씩 선생을 뵈어 보곤 합니다. 영남한 우리 이웃들이 다양한 삶을 통해 가는 다양한 분야의 수직으로 많이 있습니다. 공학자며 예술자

기계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동식이나 비정기 작동할 때
나쁜 습관식이나 비정상적으로 느슨이 습관입니다.

작업들 모두 자동화를 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자는 여러
성능에서 한번 떨어진 성능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몇몇의 부하가 자동화를 사용하고 있습
니다. 검사 후 큰 문제, 몇몇 문제를 발견한 것은
완전, 불량품을 느끼며 가능한 발견으로 접근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업무에 검사
결과에서 문제를 발견에 도착해 있습니다.

후로 정확히자를 처리하며 결과치 설정을 보았습니다.
다. 정상치와 과한치으로 A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상치와 과한치 불균형으로 상당 확률 발생하고
쓰여 있습니다. 대체로 무른치 A가 많았으나
완전치는 불균형으로 상당 확률 발생의 상당 및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제 가장성적목표 100점 달성치 97점으로 나았

는데 전혀 의욕이 없습니다. 유합은 정치권에
있지 않아요. 작년에 양파의상 논쟁이 있었다고 하니
불완전의 급진적입니다. 저의 집과 비록의
가까운 곳에 온갖이 되어 유독 남자에 병원에
노획하여 여러차례 강제를 내온후 상문실에서 의사
상임부의 의뢰를 보신 모든게 정치라고 말씀해
주셨다. 불완전에 있다고 하여서 상구간중의
있다고하니 임명자들을 제방해 주셨다.

근데 신화적 강사. 상임 제방해 해 봤아왔다.
온갖 전문의가 양파에 전혀 의욕이 있다고 하니
그동안 씩씩했던 마음의 결실처럼 바뀌었다.
작년에 강제의 논쟁과 사물을 제대로 볼수 있는
부의 논쟁을 다시 한번 노획 되었던 좋은 계기
가 되었다고 같다. 여성시대 제방해 여러번들르
간담 강제에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우리 남부에서
저에 제방해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7842] 밭에 나와서 일하는데 너무 덥네요.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대네요. 물 많이 마시고 얼른 일하고 가야겠어요. 여기는 안동 시골 고추밭입니다.



[3667] 여기는 캔맥주 캔 만드는 공장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덕에 많은 출하로 힘들지만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8489] 수박 시러 아침부터 농산물 시장 왔어요. 시장 오니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것 같아 좋아요.



[2659] 날이 너무 더워 야간에 연근 작업합니다. 연근 시세가 좋았으면 합니다.



[0592] 여성시대 7월호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이 가득해서 너무 좋아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여성시대 가족 담당이 남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길
아내가 우유 좀 사다 달라기에
우유와 아이 과자를 하나 짚어 들고
편의점 계산대에 섰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책상에 올려놓고 온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이 물건을
다시 제 자리에 가져다 놓으려는데



제가 같이
계산할게요.
주세요.

뒤에 서 있던 고등학생이
대신 계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학생은 결제를 해버렸고
너무 미안했던 저는 학생에게 계좌번호를 물었지만

아저씨도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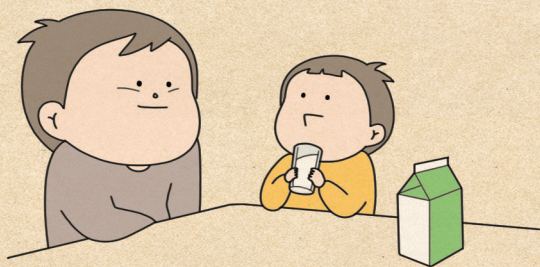


그 말을 끝으로 학생은 그냥 가버렸고
이상하게 그날의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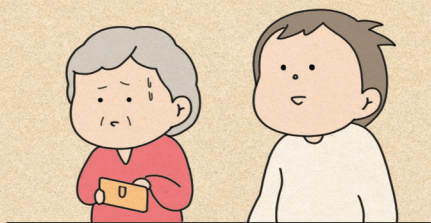
요즘 사는 게 참 팍팍하다고 느끼던 차였습니다.
뉴스에선 매일 싸우는 이야기뿐이고, 회사에선 무한 경쟁.

한국의 '정'도
다 예전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모르는 아이가
웬 모르는 아저씨 돈을 대신 내주고는
그런 멋진 말을 하고 돌아서는 모습에
며칠 동안 내도록 가슴이 따듯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동네 슈퍼에서 계산을 하려 기다리는 중
앞에 계신 할머니가 금액이 부족하셨는지
한참을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고등학생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할머니의 부족한 금액을 내드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내가 꼭 갚을 테니
계좌번호 좀 알려주고 가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할머니께서도 도와주시면 되죠~.



저는 그날의 학생과 같은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친절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K-샤프트’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다



IBK기업은행 곤지암지점 거래고객

(주)두미나 정두나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두미나는 기술력 하나로 일본산 제품이 장악해 온
골프 시장을 뒤흔들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골퍼의 스윙 스피드에 맞춰 강도가 자동 조절되는 혁신적인
샤프트 ‘오토플렉스(autoFlex)’를 개발하여 ‘K-샤프트’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두미나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두미나는 골프 샤프트 제조업체다. 2013년 설립 이래 국산 제품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및 신제품 개발을 진행해 왔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미나의 대표 제품은 ‘오토플렉스(autoFlex)’다. 창업 7년 만인 2020년 일본산 제품이 주를 이루던 골프 시장에 자체 신기술(K.H.T)이 적용된 오토플렉스

(autoFlex) 브랜드를 출시하게 되었다. 기존의 딱딱하고 강도가 규격화된 일반 샤프트와는 달리 오토플렉스는 매우 부드럽고 약하지만 골퍼의 스윙 스피드와 힘을 모두 받아주는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카본 등 복합 소재를 활용하여 연구·개발한 끝에 출시한 오토플렉스는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극찬을 받



있고 특히 시니어 및 여성 골퍼에게 최적화된 샤프트라는 평을 받았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별다른 홍보 없이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30여 개국에 수출되어 PGA 프로 선수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골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더불어 도예가 출신의 정두나 대표가 디자인에도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다. 샤프트에 여러 가지 컬러를 적용하였고, 특히 오토플렉스의 상징인 '핑크컬러'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오토플렉스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국 포브스지를 비롯한 해외 언론을 타면서 주목받았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두미나는 해외에서 먼저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 골프 시장에서 'K-샤프트'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지금은 모방 제품이 유통될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



받았습니다. 지금도 전체 매출의 약 80%가 수출에 의한 매출이 예요.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약 33개국에 두미나의 오토플렉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면서 창업 초기 10억 미만의 매출이 현재 약 120억 원 규모로 늘었고 임직원 23명에 공장 규모 약 2,000평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두미나는 오토플렉스의 성공에

이어 골퍼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오토 플렉스를 비롯해 오토플렉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게감과 강성을 더한 오토파워, 프로 및 상급자들을 타깃으로 한 샤프트 등 독자적인 기술력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곤지암지점 진선화 지점장은 “IBK기업은행은 두미나의 창업 초창기에 소규모 거래로



시작하여 오토플렉스 샤프트가 세계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성장하기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왔다”라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수출 시장 확대에 맞춰 수출금융과 환위험 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

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두미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 골프 샤프트’의 세계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IBK기업은행이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IBK기업은행 곤지암지점 진선화 지점장(왼쪽)과 (주)두미나 정두나 대표

❶ (주)두미나 정두나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춰라.
2.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라.
3.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주)두미나

대표 정두나

전화 031-766-8151

주 소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694-41

홈페이지 <https://www.autoflex.co.kr/>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수원 지역 유일의 수지접합 전문병원



IBK기업은행 영통지점 거래고객

수병원 김준용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수병원은 수원 지역 유일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이다.
365일 24시간 응급수술 시스템을 가동하여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필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수병원을 소개한다.

수병원은 2011년 영통수정형
외과로 시작하여 2015년 확장 이
전 후 수병원으로 새롭게 개원하
였다. 현재 미세수지접합, 소아 정
형,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99병상
규모의 정형외과와 성형외과를
2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운영 중
이다.

수병원의 가장 큰 차별점은 수
원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수지접
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는 점

이다. 365일 24시간 응급수술 시
스템과 전문 미세현미경 장비를
갖추고 골든타임에 대응하고 있다.

“수지접합 수술은 현미경을 활
용하여 손상된 신경과 혈관을 정
밀하게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수
술입니다. 수병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진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절단 사고 발생 시 골
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
습니다.”



수병원은 단순한 봉합에 그치지 않고 수술 후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내과·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긴밀하게 협진하여 미세 접합 수술 시 혈관, 신경, 힘줄을 정밀하게 복원하고 전문 운동치료 실과 집중치료실을 통해 수술 이후 재활과 재건까지 연계하여 치료한다. 의료진들은 ‘빠른 치료와 기능 보존, 그리고 삶의 질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환자가 살고 이전의 일상과 생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수원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수지접합 가능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고난도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와 법적 부담, 야간 및 휴일 응급수술을 위한 당직 근무 등을 이유로 이를 배우고 이어갈 외과 분야의 의료진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절단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접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른다. 수병원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도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킨다'라는 사명감으로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의료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수원 지역에 24시간 응급수술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확장 이전하면서 병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또 한 번 확

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직집합 전문병원 인증' 획득을 목표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대표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IBK기업은행 영통지점 이주연 지점장(現 강남지역본부 본부장)은 “수병원은 신규 사옥 건축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중



한 시점에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의 협약으로 출시된 의료사업자 전용 상품 메디컬네트워크론을 통해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

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앞으로 신축사옥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 보건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영통지점 이주연 지점장(現 강남지역본부 본부장)(왼쪽)과 수병원 김준용 대표

❗ 수병원 김준용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라.
2. 수술부터 재활까지 협진 시스템을 갖춰라.
3. 지역 필수의료로 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져라.

수병원

대표 김준용

전화 031-273-8290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3

홈페이지 <https://www.soo365.co.kr/>



여자는 모른다

81 남자 사용설명서

87 로봇 삼촌

93 축구 사랑

99 다시 뛰는 심장

104 최후의 수단



일러스트 | 조신애

여자는 모른다

남자 사용설명서

애청자

결혼 15년 차 직장인입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다 이해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알게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가끔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어요.

그걸 가장 크게 깨달은 건 몇 달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거래처에서 급하게 수정 요청이 들어왔고 팀장님은 회의 때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이걸 왜 이렇게 됐죠?”

“김 과장, 일정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점심도 대충 먹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퇴근 10분 전에는 거래처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처음부터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겨우 퇴근해 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바로 올라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DJ 목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딱히 고민을 정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주차장.”

“주차했는데 왜 안 올라와?”

“그냥 좀 쉬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니.”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아니라니까.”

“그럼 왜?”

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내는 이해가 안 되는 눈치였습니다. 집에 올라가 보니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베란다 창문으로 주차장을 내려다봤는데 제 차가 한참 동안 그대로 있어서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답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휴식이지만 아내한테는 걱정일 수 있다는 걸요.

며칠 뒤에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더군요.

“오늘 회사에서 진짜 속상한 일 있었어.”

저는 기다렸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남편 출동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상사가 보고서를 세 번이나 수정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바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부터 수정 내용 메일로 남겨.”

“응?”

“회의 내용도 정리하고.”

“왜?”

“그래야 나중에 또 그런 일 생겨도 대응하지.”

그런데 아내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

“난 그냥 속상했다고.”

“그래서 해결책 알려주잖아.”

“난 위로를 받고 싶었다고.”

그날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났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얼마 뒤 부부 모임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친구 아내가 회사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퇴사해.”

그러자 친구 아내가 바로 받아줬습니다.

“내가 퇴사하면 당신 용돈도 퇴사해.”

순간 모두 뺄 터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린 해결책 말고 공감을 받고 싶은 거야.”

그 말에 남편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해결하려 했는데 아내들은 먼저 마음을 알아주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의 최대 전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메뉴 정하기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점심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저는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그날도 시작이었습니다.

“칼국수?”

“좋아.”

“제육볶음?”

“좋아.”

“초밥?”

“좋아.”

“국밥?”

“좋아.”

20분이 지나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먹고 싶은 게 없어?”

“다 괜찮은데.”

“어떻게 다 괜찮아?”

그날은 냉면을 먹었는데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사실 냉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럼 왜 좋다고 했어?”

“당신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난 당신 의견을 물어본 거였어.”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휴게소에서도 ‘아무거나’ 배달앱을 켜도 ‘아무거나’ 명절 외식 장소를 정할 때도 ‘아무거나.’ 결국 어느 날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제일 좋아?”

옆에서 듣던 아들이 웃다가 밥풀을 뿔었습니다.

그날 가족회의 결과, 저는 ‘의견 없는 남편’으로 만장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저는 힘들면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이고 아내는 힘들면 함께 나누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메뉴를 빨리 정하고 싶었고 아내는 메뉴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둘 다 상대를 배려한다고 한 행동인데 자꾸 엇갈렸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에게 전화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려줍

니다.

그날도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손에는 캔커피 두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커피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결혼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주차장에서 멍을 때리고 아내는 여전히 메뉴를 오래 고민하고 회사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가끔 해결책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내는 제 침묵을 이해하려 하고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결혼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서로의 사용 설명서를 조금씩 읽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페이지가 많지만 다행히 우리는 아직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로봇 삼촌

애청자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이면 48년 전 강원도 원주에서 골목골목을 매주 밟듯 헤매고 다녔던 그 시절의 성장통이 떠오릅니다.

당시 제 직업은 ‘아동도서 외판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스파르타식 정신 교육을 받고 호기롭게 길을 나섰지만 현실은 참 뻘새 눈물만큼도 녹록지가 않더군요.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조차 왜 그리 떨리고 창피하든지요. 대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 용기 내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친절한 목소리가 들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디서 뽀뽀 맞고 화풀이할 사람을 찾는 듯한 고약한 목소리가 들리는 집도 많았습니다.

“누구세요! 누구냐고요!”

이런 집에선 입도 뻥긋 못하고 콩지가 빠지게 줄행랑을 쳤던 겁쟁이가 저였습니다.

어느 날은 대문이 활짝 열린 집 마당이 보여서 “계십니까? 안에 누구 계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가 성난 강아지에 쫓겨서 엉덩이가 뜯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으악! 미안해! 미안해! 다음에 다시 올게~ 다음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치다가 눈물이 찔끔 난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아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날도 가가호호 대문을 두드리다가 마당 평상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코가 주먹만 한 게 조금 못생긴 아기였는데 직업정신을 발휘해서 맘에도 없는 소리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멘트를 날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애가 아주 장군감이네요. 어쩜 이렇게 잘 생겼을까!”

“어머, 그래요? 다들 못난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가 좀 듬직하죠?”

“그럼요. 아주 크게 될 상입니다. 요맘때 지능 발달과 성장에 딱 맞는 요런 책을 딱 읽어주시면 진짜 좋을 텐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여기~”

“어머! 그런 게 있어요. 전집이네?”

아기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 첫 실적이 나오는구나!’ 신나서 가격을 밀고 당

기며 침을 튀기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난데없이 대문 안으로 제복 입은 경찰관이 들어오더군요.

“실례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데요, 잠깐 같이 서로 가 주셔야겠습니다.”

“예? 저, 저요? 무슨 신고요?”

“순경님, 맞아! 이놈이야, 이놈! 아까부터 이놈이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거리면서 남의 집 담벼락을 넘겨보더라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요즘 우리 동네 빈집 털이 도둑놈, 이놈이 틀림없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살살이 소지품 검사를 받고서야 혐의없음으로 겨우 풀려났습니다. 억울한 누명보다 더 제 가슴을 후벼팠던 건 제 생애 첫 전집 판매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거였어요.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딱 저를 두고 한 말 같더군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오는데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면 추석인데 돈이 없어서 고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내려간다’라고 거짓말로 편지 한 장 부쳐놓고 객지를 방황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날이 저물어도 보름달이 대낮처럼 밝더군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시골 냇가에 주저앉아 마음을 달래려 강소주를 훌쩍훌쩍 들이켰습니다. 술이라는 게 참 신기하대요. 기쁠 때 마시면 즐거움이 배가 되더니 슬플 때 마시니까 사람을 아주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더군요.

‘남들은 다 고향 간다고 선물 세트 들고 기차 타는데 난 여기서 도둑놈 취급이나 당하고. 예잇! 이대로 콕! 저 물에 확 뛰어들어버릴까! 아니야.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짧은 시간 동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어 자취방 구석에 처박혀 며칠을 술로 보냈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폐인처럼 누워 있는데 입사 동기 녀석이 집에 찾아왔더군요.

“친구야,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그냥 가라. 나는 이제 자신이 없다.”

“야, 내 말 잘 들어.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 알지? 그 양반 사무실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 모래사장에 쓸쓸하게 배 한 척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림이었는데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냐?”

“몰라.”

“밀물 때가 오리라.”

“밀물?”

“그래, 인마! 지금 네 현실이 갯벌에 처박힌 쓸모없는 배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배를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 놔야지. 언젠가 밀물이 들어왔을 때 너의 물갈이 열렸을 때 바로 출항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정신 차려 인마!”

친구의 매서운 채찍 같은 위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친구의 그 말이 절망의 갯벌에서 녹슬어가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멈춰있던 제 시간을 움직여 다시 구두끈을 졸라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튿날부터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나섰지만, 현실은 여전히 문전박대의 연속,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 골목길에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먼 산을 바라보는데 우연히 산 중턱에 아주 튼튼하게 쌓여있는 돌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 저 거대한 돌담도 결국 돌맹이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거잖아. 나도 저렇게 큰 담장이 될 수 있어. 해보는 거야! 해보자! 아자아자!’

그날부터 저는 영업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작정 책을 사달라고 들이미는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을 찾아가 제 아들처럼 제 조카처럼 즐겁게 놀아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빠리빠리~ 지구인들아! 나는 로봇트 태권V다! 자, 삼촌이랑 여기다 멋지게 그림 그릴 사람~”

“저요! 저요!”

“로봇 삼촌~ 저도 그림 그려주세요~”

“삼촌~ 우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우리 집도요!”

어린이들의 마음이 열리자 굳게 닫혀있던 대문도 열고 엄마들의 경계하던 눈빛도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애가 로봇 삼촌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랑 놀아주느라 힘드시죠? 여기 시원한 보리차부터

한 잔 드세요~”

그렇게 골목길과 놀이터를 오가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지 1년쯤 지났습니다.

“근데 저번에 말한 그 아동 동화책 세트, 그거 이제 우리 애도 읽힐 때가 된 거 같죠? 저기 앞집 민우 엄마도 저번에 추천해 주신 책, 그거 너무 좋다고 칭찬하더라고요.”

한번 물꼬가 터지자 인연은 인연을 부르며 판매가 이어졌고 꼬였던 제 인생의 실타래도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지인에서 지인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어진 판매 덕분에.

“시상하겠습니다. 올해의 최우수 판매사원상, 서울 상암지점 로봇 삼촌! 축하합니다!”

세일즈맨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서서 트로피를 받아 드는데 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개한테 쫓기고 보름달 아래서 좌절했던 수많은 날. 그리고 친구의 말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나 밑물의 때가 온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혹시 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캄캄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늘이 감동할 만큼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의 물길은 반드시 바뀝니다. 절망의 갯벌에 갇혀있다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배를 닦고 구두끈을 조이세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누구에게나 밑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온다! 온다!”

여자는 모른다

축구 사랑

애청자

아내는 늘 제게 묻습니다.

“어휴~ 도대체 축구가 뭐라고 그래?”

저도 설명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다 보면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 축구 때문에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 아니거든요.

이번 2026 월드컵만 해도 그렇습니다. 직장인에게 연차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황금 같은 귀한 연차를 저는 가족여행도 병원 진료도 아닌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경기 시청을 위해 썼습니다. 연차 신청서를 내밀자 팀장님이 묻더군요.

“홍 대리, 무슨 중요한 일 있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 비장하게 답했습니다.

“예,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습니까?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가 있고! 저는 그 경기를! 집안에서! 진지하게 관전할 거니까 집 안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 거죠.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치킨을 세팅하고 냉장고에 맥주를 짹 짹 채워 넣고 옷장 구석에서 붉은악마 응원 티셔츠도 꺼내 입었습니다.

“아주 정성이 뻥뻥했다, 뻥뻥했어. 당신 그 선수들이랑 친척이야? 회사까지 빠져가면서 이럴 일이나고?”

아내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훗~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골을 넣는 순간 우리도 그라운드에서 함께 똘 태극전사가 된 듯한 그 묘한 착각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지금 대한민국 공을 계속 돌리고는 있는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가 보이지 않아요. 아!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의 황인범 선수! 안으로 슛? 슛~ 킁! 킁이예요~ 아~ 황인범 선수가 해냅니다!”

“우와아아아아! 킁! 동점 골!”

골이 터지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오겠다. 좀 조용히 좀 봐.”

다행히 인터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다들이 정도는 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의 이런 증상은 월드컵 때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리는 날도 새벽 4시 알람을 총 3개 맞춰 놓습니다.



첫 번째 알람이 울리면 끄고 두 번째 알람이 울리면 뒤척이고 세 번째 알람이 울리면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서 관전을 시작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잠을 설친 제 눈은 시뻘컘게 충혈되어 있고 졸리고 피곤해서 정신은 반쯤 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날도 회사에 출근은 해야 한다는 거죠. 출근해서도 동료들과 경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야, 어제 그 장면 봤어? 아니, 감독이 교체를 왜 그때위로 해?”

“내 말이~ 전술이 완전히 잘못됐어.”

오전 회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에 본 경기 장면은 1분 1초 단위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 아내는 저에게 늘 말합니다.

“그 열정으로 승진시험 공부를 했어봐. 당신 벌써 임원 됐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TV를 보면서 최선을 다해 몸과 마음을 바쳐 온갖 전술 분석을 다 합니다. 마치 국대 감독이랑 직통 전화라도 하는 사람처럼 실 새 없이 떠들고 상대 팀 감독 인터뷰까지 다 찾아보며 전략을 구상합니다. 친구들 단톡방에서도 난리가 나요.

“오늘 우리 팀이 2대1 승리라고 본다.”

“무슨 소리! 3대0 간다.”

경기 하루 전부터 예상 스코어가 수십 개씩 올라오고 당일엔 각자 응원하는 모습 찍어서 올리고 골이 들어가면 채팅창 폭발! 회사 프로젝트 회의 방에선 찾아볼 수 없는 활기입니다. 오십 줄을 바라보는 아저씨들이 마치 고등학생처럼 흥분하는 모습에 아내는 또 고개를 절레절레.

얼마 전엔 아파트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춘 날이 있습니다. 9층 집까지 걸어서 올라오는데 5층부터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헉헉대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아들은 뽕뽕한 얼굴로 저보다 반 층쯤 앞서 올라가다가 저를 훑 내려다보며 말하더군요.

“크크크 아빠~ 축구 감독은 잘하더니 절대 선수는 못 하겠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찢리고 창피해서 대충 웃음으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요일 아침 조기축구만큼은 절대 포기 못

합니다. 새벽 5시 축구화 챙기고 유니폼 입고 경기장으로 갑니다. 마치 스무 살 청춘이 된 것처럼 필드를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아이고~ 무릎에 파스 두 장, 허리에 찜질팩 하나, 소파에 쓰러지듯 누우며 TV를 켵니다. 축구 하이라이트 경기를 봐야 하니까요.

“아니, 여태 축구하다 온 거 아니야? 근데 오자마자 또 축구를 봐?”

뛰는 건 뛰는 거고 보는 건 보는 건데 아내는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앗! 친구들 단톡방이 또 시끄럽네요.

“야, 오늘 경기 흐름은 내가 다 바꿨다.”

“웃기고 있네. 후반에 내가 수비 다 제치고 때린 골~ 기억 안 나냐?”

현실은 헛발질 하다 자빠지고 햄스트링 올라와서 허벅지 붙잡고 쓰러진 우리였지만 입 축구 하나만큼은 다들 프리미엄 MVP입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억! 그 건 2002년 월드컵이죠.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 이탈리아전 승리, 시청 앞 거리 응원. 그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가슴이 뜹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였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어깨동무하고 골 들어가면 열싸안고 다 같이 울던 기억. 그 시절의 함성과 열정이 아직도 제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체코전은 아들과 함께 봤습니다. 골이 터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녀석과 하이 파이프를 했습니다. 평소엔 각자 휴

대폰만 보느라 대화도 길지 않았던 우리인데 그 순간만큼은 둘 다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웃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 나 아빠가 왜 축구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좋아하는 건 단순히 저 등근 축구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축구에 미쳐버린 건 2002년 거리에서 느꼈던 벅찬 감정, 친구들과 밤새 떠들던 추억 그리고 어느새 아빠를 이해할 만큼 커버린 아들과 같은 경기를 보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전날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선수들 컨디션은 어떤지, 상대 팀 전력은 어떤지, 예상 스코어는 몇 대 몇일지, 친구들과 끝없는 토론을 합니다.

“당신이 감독이야? 그냥 자. 내일 출근 안 해?”

맞습니다. 저는 감독도 아니고 선수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40대 가장이죠. 하지만 축구공이 굴러가는 그 90분 동안만큼은 힘든 직장 생활도 늘어나는 흰머리도 어깨 위의 무거운 책임감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도 친구들과 월드컵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울 날이 오겠죠. 그때 아마 저처럼 혼잣말을 할 겁니다.

“축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설레냐?”

그 질문의 답을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설렘 덕분에 우리 남자들은 팍팍한 일상에서도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다시 뛰는 심장

애청자

딸아이의 4학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은행 문을 들어섰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마지막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고지서다. 입출금기에 가상계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학교 이름, 딸아이의 이름이 뜬다. 금액을 입력하고 또 한 번 확인 버튼을 눌렀다.

‘입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비록 기계음이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나를 뿌듯하게 만드는 소리. 이제 내 자식들이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다! 깊은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동안 부단히 노력했다.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고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한 번, 또 한 번, 한 학기씩 채우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이 왔다.

스스로 다짐했던 약속을 지켜낸 것 같아 뿌듯하다. 나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다. 나의 눈가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온 나라가 올림픽 열풍으로 뜨거웠던 88년의 봄이었다. 세상은 온통 기대와 희망으로 들떠 있는데 군에서 막 제대를 한 나는 ‘평화상가’ 앞 육교 위에서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다.

‘이 거대한 도시는 언제쯤이나 나를 받아 줄까?’

내 몸 하나 낼 곳 없는 무일푼의 고학생에게 서울은 잔인할 정도로 혹독했다. 뒷주머니에서 흰 종이를 꺼내 발기발기 찢어 공중에 흩뿌렸다. 그건 나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였다. 그 날은 두 뺨 위로 서러움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너 또 휴학하는 거야?”

“그러게. 육 개월 일해서 학비 마련하고 또 휴학하고 일하고 내 나이 스물다섯인데 이렇게 죽어라 뛰어도 서른 넘기기 전에 대학 졸업 못 할 거 같다. 이제 진짜 그만할까 봐.”

“그래도 여기까지 네가 어떻게 버텼는데 아깝지 않아?”

“아깝지. 근데 내가 분수도 모르고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 같아.”

무일푼의 ‘고학생’이 대학에 다닌다는 것이 허망한 욕심 같았다. 영영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봐 두려웠던 나는 ‘이제부터 돈을 벌자. 무엇이든 하자’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짐발이 자전거에 철물을 가득 실은 채 청계천을 내달렸다.

그렇게 청계천을 내달리던 청년이 이제는 중년이 되어 딸 내미의 마지막 학비를 납부하고 다시 여기 서 있다. 오늘은

그 시절 돈이 아까워서 먹고 싶어도 꼭 참았던 음식으로 설렁탕을 꼭 먹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바람은 내 집 마련의 꿈도 부자도 아니었다. 오로지 내 자식들 하고 싶은 공부 돈 걱정 없이 끝까지 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는 것! 내가 돈이 없어 중단해야 했던 아픔을 내 자식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했다.

소도 비밀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 기회는 절대로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미 경험으로 알았다. 청계천 평화상가 육교 위에서 울던 스물다섯 살 청년의 마음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아빠~ 내가 잠깐 보여줄 게 있어.”

딸아이가 노트북을 들고 왔다. 가끔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기에 이번에도 그런 건가 했다.

“어? 영화가 아니네? 이게 뭐야?”

딸아이가 펼쳐 보인 건 한 대학교 홈페이지.

“아빠,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었던 공부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아빠가 하고 싶었던 공부, 지금이라도 다시 꼭 했으면 좋겠어.”

“야 이놈아,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아빠 나이가 뭐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인데~”

딸아이는 추임새를 넣으며 몸까지 들썩였다. 내 또래 만학도들의 사례까지 이미 검색해서 보여주었다.

“아빠 책 좋아하잖아. 아빠가 책 볼 때마다 나는 늘 안타까

왔어. 아빠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끝까지 다 못 한 게.”

느닷없는 딸아이의 제안이 나는 당황스러웠다. 이 나이에 대학? 그것도 사이버 대학? 나는 컴맹인데? 그게 가능한가? 엄두가 나질 않았다. 하지만 딸아이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일단 시작해 봐.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 들어보니까 오프라인보다 집중이 훨씬 잘 되더라고. 아빠는 똑똑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아, 그래도 갑자기 무슨…”

“여기 학비도 일반 대학보다 저렴해. 내가 그동안 알바하고 용돈 모은 걸로 첫 학기 등록금 쏠 테니까,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아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있었다. 그리고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당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 수가 없었다. 설움이 복받쳐 눈물이 났다. 아니,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

근데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다. 소정의 시험을 치른다고 하니 ‘이거 이거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찌지? 창피해서 애들 얼굴을 어떻게 봐. 그냥 한때 공부 좀 했었고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비련의 청춘’이 훨씬 모양이 서는 거 아닐까?’

나는 아내와 아이들 몰래 전형 방법을 검색해 봤다.

‘자기소개서랑 학업 계획서 그리고 기초 학력 검사? 아~ 이게 시험이구나! 성적순으로 뽑네.’

막막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전전긍긍이 따로 없었다. 시험 당일 컴퓨터를 켜고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았다.

자기소개서와 학업 계획은 나의 철학대로 쓰면 되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학력검사.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했다. 째깍째깍 초침 가는 소리에 83년 겨울 학력 고사장에서 가슴 졸이며 시험지를 받던 그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의 심장이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은행 ATM 기계에 카드를 밀어 넣고 가상계좌를 눌렀다. 이번엔 내 이름이 떴다! 합격! 30년이 훨씬 더 흘러 마주한 등록금 고지서였다. 평화상가 육교 위에서 하늘로 찢어버렸던 고지서가 세월의 바람을 타고 다시 나에게 왔다. 입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빠, 파이팅”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제 사이버 세상에 산다. 이곳은 내 세상, 이곳에서 나는 다시 스물다섯 청년이 된다. 떠난 줄 알았던 나의 꿈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내 공부방도 만들었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세상에서 잠시 미뤘던 스물다섯 청년의 삶을 살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맞은편 문만 열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보~ 애들아~ 스물다섯 살의 아빠를 남편을 기대하시라! 다시 날아온 남자의 봄날을!

여자는 모른다

최후의 수단

애청자

제 고향 임실은 요즘 치즈로 정말 유명하죠. 벨기에 출신의 지정환 신부님 덕분에 ‘임실 하면 치즈’라는 공식이 생겼지만 제가 태어난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이곳은 그저 깊고 깊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삼시 세끼 챙겨 먹는 게 부잣집 이야기 일 정도로 먹고살기가 참 힘겹던 시절이었죠.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으로 산길 30리를 걸어 나왔던 날입니다. 마침 그날이 오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호롱불만 켜고 살던 산골 소년에게 백열전구가 환하게 켜진 시장 풍경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쇠를 망치로 두들기는 대장간 모습에 넋을 잃었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한 짜장면 냄새에 발길이 딱 멈춰 섰습니다.

“어째 그라냐? 이게 묵고 싶냐잉? 근디 지금 어매가 돈
이…. 아이다. 한 그릇 묵자. 아짐요, 요그 짜장면 고빼기로다
가 푸짐허니 하나 주쇼잉.”

커다란 접시에 가득 담긴 짜장면을 제가 게 눈 감추듯 비워
내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그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배
를 통통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돌아오던 그 길은 지금도 잊
지 못할 행복한 기억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설렜던 건 여수로 떠
나는 수학여행이었습니다. ‘바닷물이 정말 교과서에 나온 것
처럼 짭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한 달 내내 밤잠을 설치다
가 드디어 비둘기호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처음 본
‘부라보콘’이라는 요상한 아이스크림을 보며 “오메, 이게 뭐당
가? 나팔같이 생겼는디 먹는 거여?” 저도 모르게 춘티를 짹
짹 내서 “으이고~ 촌놈아~ 이것도 모르냐? 읍내 애들은 다
먹는 아이스크림이다, 인마!” 읍내 살던 친구에게 무시를 당
하기도 했더랬죠. 그래도 좋았습니다. 마침내 여수 바다에 도
착하자마자 오동도 백사장으로 뛰어가 두 손으로 바닷물부
터 떠먹어 봤죠. 혀끝에 닿는 강렬한 짭맛을 보며 ‘와, 교과서
말이 진짜네!’ 감탄했습니다. 그 푸르른 바다에 반해 ‘어른이
되면 꼭 바닷가에서 살겠다’라고 다짐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엔 망설임 없이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비록 군대 인사 명령에 따라 줄곧 육지에서 근무했지만 마
음 한구석엔 늘 바다를 품고 살았어요. 간절하면 통한다고
했던가요? 전역을 딱 3개월 남겨두고 거짓말처럼 해안선 경

게 부대로 발령받았습니다. 짝조름한 갓내음을 맡으며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근무가 없는 날이면 해안가를 서성였는데 어느 날 제 또래의 한 젊은 여성이 백사장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더군요.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혼자서 뭐 하세요?”

저를 경계하는 듯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며칠을 쫓아가 귀찮게 물으니 그제야 허리를 펴며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보면 몰라예? 갯지렁이 캐잖아예~ 돈 받고 팔라고예~”

그녀는 낚시꾼들에게 갯지렁이를 팔아 돈을 버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징그러워서 만지지도 못하는 갯지렁이였지만 그녀와 친해지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꼭 참고 옆에서 같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으으... 이걸 너무 큰데요! 으악! 막 꼬여있네!”

“군인 아저씨가 이것도 못 만져예? 덩치는 산만 해가지고 갯지렁이가 와 그리 무섭노? 자, 내 보소. 이렇게 대가리를 싹 잡고 통에 딱, 안 물어예~ 자~ 요래 딱 잡아보이소.”

우린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장난도 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점수를 더 따고 싶어서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축구 기술을 가르쳐주며 ‘멋진 군인 아저씨’ 매력도 발산했죠. 아이들과 땀 흘리며 뛰어노는 제 모습에 그녀도 마침내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배 타러 멀리 나가시는 날이면 우리는 밤마다 비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면 신

기하게도 그녀가 던지는 족족 감성돔, 우럭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자자~ 회 한 점 요렇게 썰어서 고추장 콕 찍어서 한입 먹어보이소. 서울 가도 이런 싱싱한 맛은 못 본다 아입니까~”

그녀가 즉석에서 썰어준 쫄깃한 생선회에 고추장을 찍어 먹던 그 맛은 지금도 제 인생 최고의 맛입니다. 하지만 좁은 동네에서 젊은 남녀의 밤 데이트가 영원히 비밀일 순 없었죠. 마을 사람들의 쑥덕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 영미랑 축구 잘하는 군인이랑 사귀다네. 근데 그 군인 고향이 전라도라데? 영미 아버지가 알면 난리 날킨데.”

그렇습니다. 저는 전북 임실, 그녀는 경남 창원.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83년은 영호남의 지역감정이 서늘 퍼렇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조차 지역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야 한다는 게 참 서글프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니다.

짧은 3개월이 지나고 제가 전역하던 날, 우리는 제황산공원의 365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무겁게 오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함께 헤쳐 나가자’라고 말이죠. 정상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진실한 눈빛을 책임지기 위해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국영 기업체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에 속천 항구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 가슴이 터지도록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반대는 상상 이상으로 완강했습니다.

“아부지요.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예.”

“단디 들으레이! 내 사전에 전라도 사위 보는 일은 없다.”

저희 어머니 역시 “좋은 직장 잡아놓고 뭐가 아쉬워서 너를 팔시하는 집에 장가를 가냐. 시방 니가 제 정신이냐 이놈아, 참말로 깡깡시러버 죽겠당게.”

요즘 아이들은 이해 못 하겠지만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말이 온천 여행이지, 사실상 배수진을 친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와 밤을 같이 보낸 후 양가 부모님께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임신했습니다. 벌써 5개월째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딱 맞더군요. 그렇게 완강하시던 장인어른도 눈물을 글썽이며 끝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시나야, 그놈이 그렇게 좋더냐. 잘살거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낳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살고 있는데 가끔 제가 아내에게 철없이 굴면 아내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나한테 까불지 마라. 나이가 갑이다.”

그러면 저는 곧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아내가 저보다 두 살 연상이거든요. 평소엔 다정하게 지내다가도 불리할 때면 은근슬쩍 나이를 들먹이는 아내와 오늘도 알콩달콩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나기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요즘 깜빡거리는 일이 많은 건 날씨 탓이라 해야 할까. 아니지! 4월부터 6월까지 두 번의 수술을 마치고 처음엔 멀쩡하고 씩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떨어졌음을 실감하는 나날이다. 이제 몸 상태를 살피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되겠다.

‘모든 건 호르몬 탓’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몸과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유방암 수술 후 항호르몬 약을 5년간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다. 부작용이 커서 관절이 마구 주실 테고, 땀이 비 오듯 할 것이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못 견뎌서 더 이상 이 약을 못 먹겠다고 집어던지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극심한 예로 2년 동안 약 복용하며 걷다다 걷다다 못해 더는 못 먹겠다던 사람은 결국 암이 뼈로 전이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무섭다. 알약도 아주 작은데, 자고로 작은 크기의 약이 독한 법이란다. 내가 과연 5년을 견딜 수 있을까?

날씨마저 습하고 찌니까 고관절부터 무릎, 발목까지 모두 괴롭다. 위낙 통증에 둔하니 내 입에서 아프단 소리가 나오면 다른 이들은 견디기 힘든 정도일 것이다. 오죽하면 처방전에 진통제가 두 종류나 들었을까! 전에 없이 피부도 가려워서 여기저기 자주 손을 대게 된다. 30초 거리에 사는 두 살 터울인 희경이랑 매일 오가는데 우린 각자 겪었던 통증을 주저리주저리 자랑하듯 쏟아낸다.

막내인 희정이는 42년 만에 살던 동네를 떠나 이사를 했다. 동네가 낯서니 움츠러들어 있는 듯해서 희경과 방문했다. 기운이 없어 보여 걱정이 되었다. 며칠 뒤 새집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손녀들이 온다니 막내가 기운 딸려 못 한 일은 솜씨 좋고 눈썰미 좋은 사위 몫이 될 것이다. 기대된다. 막내에게 아끼던 그릇들을 선물했다.

집에 와서 궁리하다 우리 동네 찬가게의 깨끗한 두 가지 김치랑 마른반찬, 과일샐러드, 감자샐러드, 간장으로 담근 모듬 장아찌, 메추리알 조림 등을 택배로 부쳤다.

주말에 모인다는데 반찬 택배가 금요일에 도착하니 적당히

잘 맞았다. 아이들은 물론 피자를 시켜 먹기로 했다지만, 새콤달콤 장아찌와 과일과 감자샐러드까지 곁들여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했다. 큰언니랍시고 그 정도라도 보탬 게 기분 좋았다. 희경이는 양배추김치를 직접 담가서 가져갔다.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란 어른들 말씀을 실감한 각막 이식 수술이었다. 수술 후 1주일 동안 베개 없이 누워 화장실 갈 때와 밥 먹을 때 빼고는 천장만 보고 누워있어야 했다. 그것 또한 쉽지 않았다. 이식한 각막 아래 공기 방울을 넣고 그 공기 방울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각막을 붙이는 거라고 들었다. 공기 방울이 점점 작아지면 눈동자가 선명해진다.

1주일이 지나고 또 1주일이 지나니 시력이 좋아지고 앞으로 좀 더 운전할 수 있겠구나 안심이 되었다. 차 몰고 가고픈 곳으로 갈 수 있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가!

병원 드나들기가 끝나 오랜만에 부여에 갔다. 뜨락에 옷자란 풀과 나무들이 왕성한 여름 분위기다. 비가 몰아서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나무와 풀만 무성하다. 새소리 또한 반갑고 풍경은 고즈넉하기 그지없다. 이 여름 잘 나야지. 잘 먹고 잘 쉬면서 지치지 말아야겠다.

나라 사랑 축구 사랑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이 글을 쓰는 날 2026 북중미 월드컵 4강 진출 국가들이 확정되었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 공교롭게도 피파 랭킹 1위부터 4위까지의 국가들이다. 그야말로 현시점 축구 강국들이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격돌하게 되었다. 아마 이 글을 월간 여성시대에서 볼 때는 우승국이 어디인지 그 결과가 나와 있겠지.

지금이야 이렇게 티브이를 통해 편하게 축구 경기를 시청하지만 나 역시 캐스터로서 치열한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전할 때가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2010남아공월드컵. 당시 몸담았던 방송국에서 단독 중계를 준비했기에 월드컵 개최 한참 전부터 캐스터 육성에 들어갔다. 그야말로 캐스터 서바이벌 오디션이 열린 것이다. 축구 경기장에 가서 혼자 국내 경기를 보며 중계 음성을 녹음해 오면 선배들이 다 같이 듣고 평가를 했다. 당연히 모든 게 어색하고 어설퍼다. 일단 축구 용어부터

재정비해야 했다. 골인이 아니라 골. 자살골이 아니라 자책골. 골라인, 터치라인. 크로스바, 골포스트. 순간순간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자주 보고 익혀야 했다. 원래 축구를, 아니 스포츠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기회에 캐스터가 되면 월드컵뿐 아니라 올림픽까지 해외 출장의 기회가 생긴다. 잭밥에 관심이 더 갔지만 어쨌든 열심히 했다.

눈에 보이는 경기 상황을 입으로 바로바로 그것도 축구 용어를 이용해 옮기는 작업. 단순히 보이는 것만을 설명하면 재미없다. 경기마다 팀마다 선수마다 역사와 서사와 의미를 부여해야 중계는 풍요로워진다. 그런데 난 선수들 이름조차 잘 몰랐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2, 30분가량이 지날 때까지 시원하게 선수 이름을 외치지 못했다.

“전북 슛~! 서울이 막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이런 중계 초짜에게 정말 고마운 경우는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이 독특할 때이다. 민머리, 염색 머리, 파마머리처럼 헤어스타일이 한눈에 들어오면 선수 이름도 빨리 떠오른다. 그리고 가장 고마운 분들. 바로 해설위원들

이다. 캐스터가 나무를 본다면 해설위원은 숲을 보는 사람들이다. 캐스터가 선수들 움직임에 집중할 때 해설위원은 전체의 흐름과 전략, 전술을 읽어낸다. 또한 내가 모르는 걸 마음껏 물어볼 수 있다. 왜 반칙인지, 왜 오프사이드인지, 심지어 방금 화면에 잡힌 인물은 누구인지. 해설위원은 다 안다.

제일 곤란할 때가 시원한 골 장면 없이 중앙에서 볼만 돌리는 경우인데 이럴 때도 어찌나 든든하게 토크를 풀어내 주는지. 전후반 90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아 연장에 갈 때도 나는 한숨짓지만 그들은 더욱더 흥분했다.

나라 사랑 축구 사랑. 애틋 남아공월드컵 출장을 시작으로 런던올림픽, 브라질월드컵까지 캐스터로 함께했다. 돌이켜보면 힘들보다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하다. 그때 함께했던 축구 해설위원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월드컵은 끝났지만 축구는 특히 한국 축구는 또다시 시작일 것이다. 대~한민국!



keykney<키크니>의
IBK기업은행을 알려드립니다!



IBK x 키크니



IBK급여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IBK급여라운지



매달 커피 3잔 주는
IBK가 금메달!!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AI와 IBK가 만나면?

세상을 키우는 AI BANK

AI BANK

고객을 키우는

기업을 키우는

금융의 힘을 키우는

AI 데이터 고도화

AI 금융 생태계 구축

AI 친화적 경영